금수강산

9

주체107(2018)

루계 제349호 월간

 ISSN 1727-9062

애 국 가

2. 백두산기상을 다 안고 근로의 정신은 깃들어
진리로 뭉쳐진 억센 뜻 온 세계 앞서나가리
솟는 힘 노도도 내밀어 인민의 뜻으로 선 나라
한없이 부강하는 이 조선 길이 빛내세
솟는 힘 노도도 내밀어 인민의 뜻으로 선 나라
한없이 부강하는 이 조선 길이 빛내세

만수대언덕에 올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기념일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때에 인민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안고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고있는 평양시 동대원구역 동신3동 44인민반에서 살고있는 김성남가정.

본사기자 김성철

차 례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과 함께 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6(2017)년 9월

- 인민이 주인된 나라 -

사랑과 믿음, 헌신의 70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온 세상에 알리던 력사의 그날로부터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반만년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자기의 진정한 조국을 가지고 인민들 누구나가 국가주권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는 밝은 앞길을 열어놓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참으로 세계사적인 사변이였다.

맑고 푸른 9월의 하늘가에 펄펄 휘날리는 공화국기발을 바라볼수록 지난날 식민지약소민족의 비참한 운명을 감수하여야만 하였던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창건과 더불어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따라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행로에서 절세위인들로부터 받아안은 인민에 대한 최상최대의 사랑과 믿음, 헌신의 력사를 감회깊이 돌이켜본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저 하늘에 하느님이 있다는 말은 태고적부터 전해내려왔다고 한다. 이 신적인 관념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고 인간을 자연에 얽매인 무능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리였다.

하지만 언제나 인민이 제일이고 인민의 힘을 세상에서 제일 크게 여기시며 한평생 인민

을 하늘처럼 받들어올리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해방전 일제의 가혹한 폭정아래서 마소와 같이 고역을 치르며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했던 우리 인민이 해방후 공장과 농촌의 주인으로, 새 조선의 주인으로 등장한 때로부터 수많이 전해진 이야기들가운데는 이런 사연도 있다.

구성방직공장을 세번째로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처음으로 오시였을 때 만나보았던 한 처녀기능공이 고향에 내려가 결혼식을 하고는 공장에 다시 오지 않고 시집에 눌러앉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몹시 서운해하시며 공장에서 로동자들에게 살림집도 잘 꾸려주고 모든 생활조건을 다 보장해주도록 하시였다.

그후 공장으로 다시 돌아온 녀성로동자는 새 집에 살림을 펴놓고 근심걱정없이 생활하며 직포직장에서 적지 않은 기능공들을 양성하였으며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 대표로도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으며 공화국의 당당한 주인으로 등장한 사람은 비단 그뿐이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공장들을 찾으실 때마다 작업현장을 돌아보시기 전에 주택지구와 공장식당에 먼저 들리시여 로동자들의 살림살이와 생활형편부터 보살펴주시였고 그들의 기름묻은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 훌륭한 로동계급이 되도록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90년대 나라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며 난관과 시련의 고비를 넘지 않으면 안되였던 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무료의무교육제, 무상치료제를 비롯한 인민적시책들이 일관성있게 실시되도록 하시였으며 현대적인 경공업생산기지들과 가금생산기지들, 기초식품생산기지들을 건설하는데 막대한 국가적투자를 돌려주시고 문화휴양지, 극장과 영화관, 급양봉사기지들을 훌륭히 꾸리도록 해주시였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민들을 잘살수 있게 하겠는가에 대하여 언제나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시며 크나큰 정력을 기울여오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인민을 위해 베푸신 은혜 바다를 이루었건만 언제나 더 할수 있는것을 못한것은 없는가, 아직 찾아가보지 못한 곳은 없는가를 생각하시며 헌신의 자욱을 끝없이 수놓아가시였다.

여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을 위해 천여리의 강행군길을 헤쳐가신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있다.

주체98(2009)년 2월 어느날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형산소분리기와 관련한 보고를 받게 되시였다.

당시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는 더 많은 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현대적인 공정을 꾸리고있었는데 제일 걸린것이 바로 대형산소분리기였다.

해당 일군들은 시간을 단축하자면 산소분리기를 수입해오는수밖에 다른 대책이 없다고 여기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단호한 어조로 물론 대형산소분리기를 다른 나라에서 사올수는 있다고, 하지만 우리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 있는 훌륭한 산소분리기공장을 두고 대형산소분리기를 수입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락원으로 가자고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의 충격은 너무도 컸다.

흥남에서 락원까지의 거리가 결코 지척이 아니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료문제가 해결되여야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가 풀릴수 있기에 자신의 로고는 생각하지 않으시고 천여리 강행군을 결심하신것이였다.

로동계급의 힘을 믿고 그들을 불러일으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의 신념을 안으시고 그길로 차를 달려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 도착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곳 일군들에게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현대화하여야 비료문제가 풀릴수 있고 비료문제가 풀려야 알곡문제, 먹는 문제가 풀릴수 있다고, 락원을 믿고 가겠다고, 대형산소분리기를 꼭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시고 기업소를 떠나시였다.

정녕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인민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으신 덕망을 전하는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은 헤아릴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인민의 행복을 위해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믿음을 안으시고 끝없는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신 길에서 온 나라의 토지가 사회주의토지답게 정리되였고 여러 지구에 자연흐름식물길이 건설되였으며 나라의 농촌마을들이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되였고 도처에 현대적인 중공업공장들과 경공업공장들을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올랐다.

인민을 수령님들을 모시듯

공화국과 더불어 영광에 넘친 길을 걸어오면서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운 조국인민들이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심장으로 새겨안은 또 하나의 진리가 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꼭같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따르는 길에 언제나 공화국의 무궁번영할 미래가 있다는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이다.

지난 6월, 전세계의 열광적인 지지와 환영속에서 진행된 첫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소식에 온 지구가 충격으로 끓어번지고있을 때 미국의 보수언론들은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북조선령도자는 위대한 품성을 소유하고있다. 유모아적이고 리지적이며 자기 인민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거듭 칭송한 소식을 그대로 전하였다.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는분, 인민을 제일로 믿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시는분…

조국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적풍모를 책에서 알지 않았다.

위대한 장군님을 잃고 온 나라가 피눈물에 잠기였던 7년전 12월, 얼어든 인민의 심장마다를 따뜻한 태양의 열기로 녹여주시고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조선로동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선언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듯 받들겠다고 하시며 조국의 바다에 황금해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고 산림복구의 장엄한 포성으로 나라의 산과 들을 더욱 푸르게 하여주신분,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으로 조국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노래가득, 웃음가득 안겨주신분, 그처럼 준엄하였던 정세속에서도 남먼저 하늘길, 배길, 평길을 달려 북부지구의 큰물피해지역 인민들의 아픔을 가셔주고 그들에게 보금자리를 기적같이 마련해주신분,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의 자욱자욱을 옮기시며 공화국의 국력을 만방에 떨쳐주시는분…

정녕 가시는 곳마다에서 인민을 위해 바치신 그이에 대한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졌다.

그이께서 인민을 위해 내짚으신 걸음걸음마다에서 내 조국의 설계도가 펼쳐지고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높아갔다.

언제인가 대동강에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띄우도록 해주신 그이께서는 인민에 대한 다함없는 사랑과 무한한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무지개》호는 인민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비추어볼 때 하나의 모래알이나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래알들을 모아 큰 산을 쌓아야 합니다. …

인민, 그들이 바로 공화국이 창건되던 그날의 인민들이 아닌가.

지난날 외세에 짓밟히고 대국들에 순종하며 수난에 찬 길을 걸어야 했던 식민지약소국의 그 인민이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의 주인으로 새롭게 태여나 평남관개공사를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과 증산경쟁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주인된 손으로 새 조선을 보란듯이 일떠세웠다.

잃고서는 살수 없는 조국을 위하여 조국해방전쟁에 불사신마냥 떨쳐일어나 위대한 전승신화를 창조한 인민도, 전후 천리마를 탄 기세드높이 사회주의건설을 줄기차게 벌려온 인민도, 1970년대, 1980년대에 수많은 건축물들을 일떠세워 평양번영기를 펼친 인민도, 1990년대 력사에 류례없이 간고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속에서도 허리띠를 조이며 자기의 일터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름아닌 존엄높은 공화국의 평범한 공민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그 사랑과 믿음, 헌신이 없었더라면 우리 인민은 험난하고 시련에 찬 력사의 언덕들을 넘어올수 없었을것이다.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최고화신이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끝없는 매혹과 철석같은 믿음으로 수령과 대중이 하나로 굳게 뭉친 조선의 일심단결,

령도자는 인민을 위해 불멸의 헌신을 수놓고 인민은 령도자의 사상과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물과 불속도 헤쳐가는 혈연의 관계, 이 가를수 없는 혼연일체와 맞설 무기는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다.

하기에 인민은 그이 없인 못살아라는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며 목숨과도 같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지키고 빛내가는 길에서 공화국공민의 본분을 다해나가고있다.

절세의 위인들이 사랑과 믿음, 헌신으로 수놓아온 영광스러운 공화국의 70년을 돌이켜볼수록 자랑스럽다.

사람들 누구나 즐겨부르는 시대의 명곡인 《조국찬가》에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그 모양,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붓기고,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라는 구절들에도 있는것처럼 우리 공화국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며 인민의 꿈과 리상을 활짝 꽃피워갈것이다.

본사기자 연옥

일 화

절세위인들의 하늘과 스승

인민을 하늘로, 스승으로 여기고 받드는것, 이것은 절세위인들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민관이다.

아래에 절세위인들께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나날에 있었던 인민관을 보여주는 몇가지 사실들을 소개한다.

인민대중의 축지법

해방후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새 조국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날 한 일군이 주석께 만주광야에서 일제와 싸우실 때 쓰신 축지법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실것을 청하였다.

일군의 청을 받으신 그이께서는 항일유격대가 일제와 싸워 승리할수 있은것은 인민대중과 혈연적련계를 가지고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방조를 받았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우리가 축지법을 쓴다는 말도 우연하게 나온것이 아니다. 유격대가 인민대중과 혈연적련계를 맺고 항상 그들에게 의거하여 싸웠기때문에 그런 전설같은 이야기가 생겨난것이다. 일제가 밀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있는 곳을 탐지하고 비밀리에 군대와 경찰을 출동시키군 하였지만 그때마다 인민들은 우리에게 얼마만한 일제병력이 어디에서 떠나 어느 골짜기로 쳐들어간다는것을 알려주었다. 인민들로부터 이런 정보를 받으면 우리는 곧 부대지휘관회의를 소집하고 구체적인 전투계획을 작성한 다음 유리한 길목에 매복하였다가 불의에 나타나 적들에게 불벼락을 안기기도 하고 필요한 때에는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기도 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적들은 유격대를 《토벌》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달려들다가는 몰살되든가 허탕을 치군 하였다. 이렇게 인민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그들의 방조를 받아 묘한 전술을 쓰는것을 알리 없는 일제는 유격대가 축지법을 쓰며 신출귀몰한다고 하였다. 사실 사람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어졌다가도 다시 나타나며 땅을 주름잡아 다닐수는 없는것이다. …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그이께서는 만일 우리가 축지법을 썼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인민대중의 축지법이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며 인민들과 혈연적련계를 가지기만 하면 신출귀몰하는 축지법을 쓸수 있을것이라고 하시였다.

인민대중의 축지법!

참으로 그것은 인민을 하늘로, 스승으로 받들어오신 주석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이야기였다.

농민들이 선생

언제인가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한 농장원이 논아래 빈땅에 커다란 구뎅이를 파고있는것을 보시였다.

그에게 다가가신 그이께서는 무엇에 쓰려고 그것을 만드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뜻밖에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온 농장원은 어찌할바를 몰라하며 그이께 논을 적시고 나온 물을 그냥 흘러보내기가 아까와서 물을 잡아두었다가 다시 쓰려고 한다고 말씀올리였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은 저수지나 강이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는것으로 생각하고있는데 이렇게 쓰고 남은 물을 잡아두었다가 양수기나 강우기로 다시 끌어올리면 논도 적시고 강냉이밭관수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말씀드리였다.

그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과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그때 일을 추억하시며 농사를 지자면 농민들을 만나야 한다고, 농사일에서는 농민들이 선생이라고 참으로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최우선, 절대시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미래상점을 돌아보시였다.

상점안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던 그이께서는 한 매대에 이르시여 문득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러시더니 일용잡화매대에 있는 안경을 보지 못하고 지나쳐왔는데 다시 가보자고 하시며 되돌아서시였다.

각종 색안경과 도수안경들이 일매지게 꽂혀있는 진렬대에서 안경을 뽑으신 그이께서는 안경진렬대가 안경을 뽑기 불편하게 되여있다고, 안경진렬대는 빙빙 돌아가게 만들어놓아야 손님들이 안경을 고르기 더 편리할것이라고 이르시였다.

이윽하여 몸소 색안경을 끼여보신 그이께서는 상점일군에게 어디서 거울을 볼수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가까이에 있던 한 판매원이 거울을 가지러 다른 매대로 달려갔다.

이윽고 거울을 받아드신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안경을 파는 매대에는 거울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손님들이 안경을 낀 자기의 모습을 볼수 있다고 일깨워주시였다.

향수제품을 보실 때에도 그이께서는 화장품매대에 향수냄새를 맡아볼수 있게 작은 숟가락같이 생긴 종이를 꼭 놓아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거기에 향수를 쳐서 냄새를 맡아보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전기용품매대에 들리시여서는 각양각색의 선풍기들을 보아주시면서 손님들이 상품을 살 때 동작원리를 물어볼수 있으므로 그들에게 알려줄수 있게 판매원들이 상품들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있을데 대한 문제까지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참으로 그이께서는 무엇을 하나 보고 대하시여도 인민들의 립장에서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도록 하시였다.

본사기자 변진혁

반 향

조선인민이 부럽다

오늘 국제사회계는 인민의 지위가 최상의 높이에 이르고 인민들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보람찬 삶을 안겨주는 사회주의조선에 대한 찬사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있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에서는 근로자들의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는것을 생산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원산구두공장, 사리원시미곡협동농장 등 그 어디에 가보아도 훌륭하게 꾸려진 일터에서 근로자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조선에서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해주며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는것을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있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누구나 마음껏 배우고 일하며 태여나서부터 국가와 사회의 관심속에 인간의 권리를 보장받는 조선에서는 나라를 위하여, 사회의 번영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할것을 호소하는 목소리만 크게 울려나올뿐 사회제도에 대한 울분과 저주의 목소리는 전혀 들을수 없다.

왜냐하면 조선에는 치료비, 집값, 세금 등 분노할 조건이 없기때문이다.

조선에서는 세계 그 어디에서나 찾아볼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두운 그늘을 던지는 요소들이 없으며 반대로 따사로운 해빛과도 같은 인민적시책들이 실시되고있다.

몽골인민혁명당대표단 단장은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경상유치원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있는 평범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기쁨과 랑만에 넘친 모습은 참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개인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인민의 편의와 리익을 위한 이러한 시설들을 생각할수 없다, 조선의 현실은 진보적인류의 미래는 사회주의에 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수 기

사회주의 내 나라가 제일입니다

저는 20여년간 건설로동을 해오는 평범한 로동자입니다. 저에게는 마음씨 고운 안해와 아들딸 두 자식이 있습니다. 오붓한 가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흔히 자식을 가진 부모들이 다 그러하듯이 저도 가정이 행복하고 자식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한 가정의 세대주입니다. 그래 제딴에는 세대주구실을 한다고 하지만 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국에서는 국가가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가 되여 집마련, 자식교육을 비롯하여 세대주들이 해야 할 가정의 큰일들을 맡아안고 해결해주고있기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조국에서 사는 사람들 특히는 저와 같은 세대주들 대부분이 못하고있다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저도 그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생활해보는 과정에 직접 체험해보고서야 절감하였습니다.

언제인가 제가 어느 한 나라에 건설로동자로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얼마동안 같이 일하며 친숙해진 그 나라 사람은 저에게 집이 있는가, 자식들은 어떻게 공부시키는가, 딸이 심장을 앓았다고 하는데 그 치료비는 어떻게 마련했는가 등에 대해 물어보는것이였습니다. 그것은 가정생활의 보금자리인 살림집문제와 자식들의 장래를 위한 교육문제, 치료문제 등을 념두에 둔 말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라에서 무상으로 집을 지어줄뿐아니라 무료로 공부시켜주고 치료도 해주고있다고 솔직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놀라며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는 20㎡짜리 집을 세내여 다섯식구가 살고있는데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또 병치료에 드는 돈을 벌기 위해 여러가지 직업을 가지고 일하지만 잘 안된다고, 얼마전에는 안해의 병치료를 위해 많은 빚을 졌다고 하는것이였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보니 자연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내가 사는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고마운 품인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그렇고 안해 역시 나라의 혜택속에 돈 한푼 안들이고 소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였고 병이 나도 치료비라는 말을 모르고 치료를 받으며 살아오고있습니다. 저의 자식들도 그렇게 살고있습니다.

원래 저의 딸은 선천적으로 심장이 나빴습니다. 그런 딸애를 볼 때마다 저와 집사람은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수 없는것으로 여기고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진료소의 담당선생님이 찾아와 하는 말이 김만유병원에서 딸애와 같은 병을 가진 환자를 완치시켰다고 하면서 당장 병원에 입원시키자고 하는것이였습니다. 그렇게 되여 저는 딸을 김만유병원에 입원시키게 되였으며 그곳 의료집단의 정성으로 딸애는 병을 고칠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안해는 의사선생님들이 고마워,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고마워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습니다.

그런 고마움의 눈물은 우리 가정이 려명거리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받아안았을 때 더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철거세대여서 맨 마지막으로 집을 배정받을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과 함께 우리 가정도 제일 먼저 입사시키도록 조치를 취해주었습니다. 그것도 려명거리의 제일 좋은 곳의 4칸이나 되는 집이였습니다. 부부방이며 자식방 등 여러칸이나 되는 살림방과 전실, 부엌, 위생실과 넓다란 베란다에 화단까지 갖추어져있는것을 보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태양에네르기로 집안의 조명과 가정용전기설비들을 리용할수 있게 되여있어 감동은 끝이 없었습니다.

로동자인 제가 이런 훌륭한 집을 받으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하였습니다. 그래 꿈만 같아 며칠을 두고 방안의 가구며 부엌세간들을 어루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혜택이 너무 고마와 눈물을 쏟고 또 쏟았습니다.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 같으면 우리 같은 로동자가 이런 집에서 살 엄두나 낼수 있겠습니까. 정말이지 이것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며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우리 조국에서만 볼수 있는 인민사랑의 참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에 우리 인민들은 누구나 사회주의 내 조국을 자기의 생명처럼 귀중히 여길뿐만아니라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긍지높이 이야기하며 우리 조국을 더욱 빛내이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고있습니다.

대외건설지도국 로동자 림기봉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공화국법

오늘 우리 조국땅에는 가슴뜨거운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자랑찬 력사가 장엄하게 흐르고있다.

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장장 70년,

이 장구한 세월 공화국에서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은 공화국법에 의하여 철저히 담보되여왔으며 끊임없이 보충갱신, 완성되여왔다.

일반적으로 법은 정치의 표현이며 그의 정치적우월성, 진보성도 인민대중을 위하여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복무하는가에 의하여 규정되며 그의 인민적성격도 좌우되게 된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공화국법의 진정한 인민적성격을 더욱 부각시켜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화국은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라는 사상을 내놓으시여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공화국법의 인민적성격을 새로운 경지에서 심화발전시켜주시였다.

법이 인민을 지켜야 한다는것은 공화국법이 계급적원쑤들의 책동과 온갖 범죄 및 위법행위로부터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호하는 법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이며 인민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것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법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고 법을 자각적으로 성실히 준수집행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공화국법의 인민적성격은 첫째로 법의 제정과 준수집행에서 인민대중의 지위가 집대성되여있다는것이다.

법에 누구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는가 하는것은 법제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착취계급이 정권을 장악하고 법을 행사하는 착취사회의 법에는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할수 없으며 그 법은 인민을 지키는 법으로 될수 없다.

결국 인민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데는 인민대중이 법집행의 직접적담당자로서 법을 자각적으로, 성실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다는것을 밝혀준다.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공화국법의 인민적성격은 둘째로 법의 제정과 집행에서 인민대중의 실제적인 역할이 집대성되여있다는것이다.

공화국공민은 누구나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 선거에 참가하고있다.

우리 사회에서 인민대중은 각급 인민대표제기관을 통하여 자기의 의사와 요구가 반영된 법을 제정하고있으며 법을 자기자신의것으로 받아들인 광범한 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에 의하여 그 준수집행이 보장되고 그들의 목적의식적이며 주동적인 역할에 의하여 추진되여나가고있다.

공화국법의 인민적성격은 셋째로 법의 제정과 준수집행의 목적이 뚜렷이 밝혀져있다는것이다.

인민대중이 법의 제정과 집행의 주인으로 되는것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법의 제정과 집행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참다운 생활을 누리려는데 있다. 다시말하여 법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자는것이다.

법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인민대중의 생명재산을 지키고 그의 리익과 요구, 자유와 행복을 명실공히 담보할수 있으며 법위반행위, 범죄와의 투쟁을 옳바로 벌려나갈수 있다. 그래야 법이 인민대중의 뜻과 의지의 진정한 대변자로, 참된 보호자로, 복무자로 될수 있는것이다.

공화국에서는 법의 제정과 집행을 위한 모든 사업이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데 지향되고 복종되며 법이 실생활에 구현되여 이루어지는 모든 결과도 인민대중의 요구를 실현하고 그들의 활동을 보장하는것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주체106(2017)년 신년사에서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인민의 참된 충복, 충실한 심부름군이 될것을 엄숙히 맹약하시였다.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자신의 한몸을 초불처럼 깡그리 불태우시며 인민사랑의 정치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령도에 의해 이 땅우에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아름다운 화원이 활짝 꽃펴나고있다.

인민경제대학 법률강좌 부교수 박사 리호일

인민의 모습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조국에서는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가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되고있다.

그러기에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정권기관일군들의 모습을 어디 가나 볼수 있다.

그들중에는 평양시 평천구역인민위원회 일군들도 있다.

평천구역인민위원회에서는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사업의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무슨 일을 하나 해도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도록 하고있다.

모자란다는것을 안 인민위원회일군들은 대담하게 새 교사건설을 발기하였다.

말이 쉽지 교사건설을 구역자체의 힘으로 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하지만 리지남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공사현장에 사무실을 정하고 모든 일군들이 학교건설에 발벗고 나서도록 하였다. 일군들이 나서니 교원들은 물론 학부형들까지 떨쳐나섰다. 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4층짜리 새 교사가 번듯하게 일떠섰을 때 학부형들과 교원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후대들을 위해 바쳐가는 일군

평천구역 봉학소학교에 필요한 교구비품들을 마련해주는 교육부 일군들

위원회에서는 매일 인민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료해하고 대책하여 인민들이 사소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하고있다.

지난 6월 륙교1동에서 상수도관이 터졌을 때였다.

구역인민위원회일군들은 모두가 떨쳐나서 그날중으로 수십m에 달하는 상수도관을 새로 교체하였으며 주민들에게 먹는물을 정상적으로 공급할수 있도록 하였다.

구역인민위원회일군들의 발걸음은 학교의 교정에도 새겨져있다.

평천구역 새마을소학교의 학생수가 많아 교실이

들의 뜨거운 진정에 눈시울을 적시였다.

최근에 평천구역 새마을초급중학교와 평천구역 천리마거리소학교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제기되자 오태덕 교육부 부장을 비롯한 많은 일군들이 거기에 필요한 세멘트와 자재들을 해결하기 위해 머나먼 출장길로 솔선 떠났고 인민위원회 부위원장들도 학부형이 된 심정으로 학교사업을 도와나섰다.

위원회에서는 구역안의 공장, 기업소들이 교육부문 후원단체로서의 역할을 높여나가도록 이끌어줌으로써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해나가기 위한 사업이 더 활기를 띠고 진행되도록 하고있다.

이런 마음들에 떠받들려 구역안의 학생들의 실력은 날을 따라 높아졌으며 상급학교 입학비률은 평양시적으로 제일 높은 구역들중의 하나로 되고있다.

보건부 일군들도 주민들에 대한 의료사업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있다. 그들은 구역안의 종합진료소들에 늘 나가 의료봉사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필요한 물자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내미는것과 함께 호담당의사들이 주민들속에 들어가 위생선전도 하며 치료예방사업에서 성과를 거두도록 하고있다. 그 과정에 미래종합진료소를 비롯하여 많은 진료소들에서 자체로 채취한 약초를 가지고 효능높은 고려약을 생산하여 환자치료에 리용하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을 료해하던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정평동 12인민반에서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평천구역 정평고급중학교 학생 서성하에 대하여 알게 되였다.

그는 학생의 집을 자주 찾아가 생활에서 제기되거나 애로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대책해주고 그의 학습방조도 해주며 남자손을 기다리는 일감도 스스로 찾아해주고있다.

그리고 그가 전국 청년학생들의 백두산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참가한다는것을 알고는 옷, 신발, 세면도구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친부모의 심정으로 준비해주었다.

오늘 평양전기기술대학 학생이 된 서성하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해빛과도 같은 내 조국의 따사로운 사랑을 친아버지, 친어머니와도 같은 구역인민위원회일군들의 모습을 통해 눈물겹게 받아안았습니다.》

참말로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정권기관일군들이 있어 인민은 사회주의조국을 어머니라 부르며 그 조국에 자기들의 진정을 다 바쳐가고있는것이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상업부에서는 상점들에 나가 봉사사업을 잘하도록 도와주고있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짜고드는 보건부 일군

거리를 아름답게 꾸리도록 요구성을 높여가는 도시경영관리부 일군들

선거에 참가하여 대의원후보자들에게 찬성투표하고 나오는 인민들

- 인민이 주인된 나라 -

삶의 보람안고 사는 인민

누구나 무료로 마음껏 배우고있다.

창조의 기쁨에 넘쳐있는 근로자들

국가에서 무상으로 안겨준 살림집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무상치료제의 혜택아래

조국의 영예를 떨쳐가는 체육인들

예술적재능을 활짝 꽃피워가는
학생들과 어린이들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방은심

다양한 예술공연
으로 인민들의 심
금을 울린다.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즐기는 인민들

조국에 대한 끝없는 긍지를 안고

국기와 국장

국기와 국장은 국가의 상징이고 표징이다.

우리 나라의 국장과 국기는 주체37(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과 함께 제정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공화국기는 항일혁명선렬들의 붉은 피가 물들어있어 붉고 조선로동당을 받드는 군대와 인민의 백옥같은 충정이 깃들어있어 희며 인민의 원대한 꿈과 포부가 비껴있어 푸르다.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국장의 웃부분에 새겨진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오각별, 그 별의 빛발들은 항일혁명투쟁의 빛나는 전통과 조국통일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상징하며 수력발전소와 벼이삭은 우리 나라 공업과 농업의 발전과 그 전망 그리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원대한 구상을, 붉은 띠를 테두리로 하여 국장을 타원형으로 한것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단결의 영원성과 조국의 부강번영, 찬란한 미래를 상징한다.

*　　*　　*

반 향

《위대한 품성을 소유한 령도자》

세계 각국의 신문, 통신, 방송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미국대통령 트럼프와 싱가포르에서 조미 두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수뇌상봉과 회담을 진행하신 소식을 거대한 력사적사변이라고 격찬하며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은 **김정은**최고령도자에 의하여 마련된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과정의 일환인 조미수뇌상봉은 국제적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고 전하였다.

로씨야의 언론들은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소식을 전하면서 대조선전문가들이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직접적인 로고에 의해 조선반도뿐아니라 우리가 사는 행성에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고있다, 평화수호를 위한 조선의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라고 발언한데 대해 보도하였다.

미국의 보수언론들까지도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할 때 《북조선령도자는 위대한 품성을 소유하고있다. 유모아적이고 리지적이며 자기 인민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거듭 칭송한 소식을 그대로 전하였다.

신문《가제따 비보르챠》를 비롯한 뽈스까언론들은 상상 못하였던 일이 벌어지고 우리의 눈앞에서 력사가 창조되였다, 조선의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과거를 덮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공동성명에 서명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세계는 중대한 변화를 목격하게 될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국제사회가 주목하고있다, 핵전쟁의 문어구에 도달하였던 세계가 무서운 현실에서 벗어나도록 한 력사적계기가 되였다고 주장하였다.

국제사회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단과 의지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진행된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리상촌》을 혁명촌으로

(전호에서 계속)

그런데 우리 공작원들은 석달째 그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슬금슬금 변두리만 돌고있었다. 오가자의 유지들이 그만큼 간단치 않았다. 독립운동의 전적에다가 학식과 리론을 겸비한 령감들이여서 보통수완을 가지고서는 그들에게 말도 붙일수 없었다. 이 유지들의 집단이 마을을 쥐락펴락하였다.

촌공회를 뒤에서 조종하고 마을의 대소사를 총찰하는 사람은 변대우라는 로인이였다. 그가 마을의 실권자로서 유지들을 조종하였다. 마을에서는 그를 《변뜨로쯔끼》령감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이 그런 별명을 붙인것은 그가 뜨로쯔끼에 대한 말을 자주 하였기때문이다.

변로인은 일찍부터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국내와 만주각지를 떠돌아다니였다. 초기에는 고향 한천(평안남도)과 자성, 도청거우(림강현) 등지에서 학교들을 세우고 교육활동을 하였다. 그가 무장활동에 관여한것은 1918년 림강의 모아산에 근거지를 두고있던 독립군부대에 들어가있을 때부터였다. 그때 그는 나의 아버지와 련계를 가지느라고 림강의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변로인이 오지 못할 때에는 강진석외삼촌이 그와 아버지사이의 련계를 지어주었다.

대한독립단 선전부장과 민족독립군 부총재, 광복군 군법부장 겸 제1영장직을 거쳐 통의부의 실업부장직까지 차지하고 독립군운동을 추켜세우려고 동분서주하던 그는 1926년부터 군직에서 물러나 《리상촌》건설에 몰두하였다.

이 로인이 한때는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면서 쏘련의 원동지방에도 드나들었다. 그에게는 고려공산당에 관여했을 때 받았다는 푸른 뚜껑의 당증도 있었다.

변대우로인을 돌려세우지 않고서는 완고한 유지집단을 돌려세울수 없었으며 마을을 혁명화할수 없었다.

내가 오가자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농우회사업을 책임지고있던 변로인의 아들 변달환이 나한테로 왔다. 그는 나에게 민족주의자들을 제끼고 오가자를 《리상촌》으로부터 혁명촌으로 만들어야겠는데 자기 아버지를 비롯한 마을의 유지들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하면서 김선생이 왔으니 이제는 완고하고 쓸모없는 령감들을 타도하자고 하였다.

나는 어이가 없어 변달환에게 물었다.

《타도라니? 그건 어떻게 하자는겁니까?》

변달환의 대답이 아주 걸작이였다.

《령감들이 뭐라건말건 우린 우리끼리 조직들

을 내오고 딴 가마밥을 먹으면서 오가자를 사회주의동네로 만들자는거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오가자가 둘로 쪼개질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로선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소. 오가자를 저 락후한 령감들에게 맡길수는 없구.》

《문제는 유지들이 우리를 지지하게 만드는겁니다. 내가 회장선생네 아버지와의 사업을 좀 해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달환은 그 누가 접근해도 소용없다고 하였다. 그동안 국민부에서도 오고 상해림시정부에서도 오고 엠엘계의 공산당재건위원회의 인물들도 와서 저마다 오가자에 발을 붙이려고 애를 썼지만 모두 아버지한테서 괭대를 받고 돌아갔다, 어지간한 사람은 만나주지도 않고 설사 상대가 록록치 않은 민족주의거두라고 해도 훈계를 해서 돌려보냈다고 하였다.

《회장선생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와 친분관계가 있고 또 회장선생과 나도 구면이니 생판모르는 남남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고 했더니 변달환은 벽창호같은 자기 아버지한테는 연고관계도 통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몹시 난처해하였다. 변달환은 10년전에 우리 아버지에게 보내는 변로인의 편지를 가지고 림강에 온적이 있었다.

나는 마을의 유지들이 늘 모여앉군 하는 변달환이네 집에서 여러날 《변뜨로쯔끼》령감과 담화를 하였다.

첫날에는 주로 변대우로인이 말을 많이 하였다. 올방자를 틀고앉아 대통을 연방 두드려대는데 기상이 아주 도도하였다. 김선생의 아들이 와서 반갑다고는 하면서도 나를 어린아이 대하듯 하였다. 말끝마다 《너희들》, 《너희들》 하면서 훈시만 하였다. 인물이 잘나고 기상이 칼칼한데다가 리론수준도 상당해서 처음부터 위압을 느끼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변로인이 내 나이를 묻자 다섯살을 불쿠어 스물세살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나이를 불쿠지 않고 열여덟살이라고 하면 그가 더욱 애숭이처럼 대할수 있었다. 내가 나이에 비해 조숙했던것만큼 스물세살이라고 해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 당시 나는 어디에 가나 나이를 물으면 스물세살 아니면 스물네살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는것이 유지들과의 사업에서도 유리하고 청년들과의 사업에서도 유리하였다.

나는 변로인이 리치에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경우에도 반박하거나 중단시키지 않고 례절을 차리면서 참을성있게 들어주었다.

로인은 요새 젊은이들은 남이 열마디를 하면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고 봉건이요, 뭐요 하면서 트집만 잡는데 성주와는 말할 재미가 있다고 하였다.

하루는 그 로인이 저녁을 차려놓고 나를 청하였다. 김형직선생이 생존해계실 때 자기는 림강에서 식사대접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자기가 변변치 않은 음식이지만 한상 차렸다고 하였다.

로인은 나와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불쑥 이런 질문을 하였다.

《너희들이 우리 〈리상촌〉을 허물어버리려고 왔다는데 그게 정말이냐?》

자기 아버지가 공산주의자들을 제일 경계한다고 하던 변달환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리상촌〉을 허물다니요. 우리가 도와드리지는 못할망정 로인님들이 공을 들여 꾸려놓은 〈리상촌〉을 왜 허물어버리겠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힘도 없습니다.》

《음, 그런가. 그런데 우리 달환이를 필두로 해서 오가자의 젊은 녀석들은 밤낮 〈리상촌〉이 어쩌구저쩌구하면서 늙은것들을 타도하고 우리 동네에 붉은기를 날릴 생각만 하고있지. 소문을 들어보면 오가자의 청년들을 움직이는 지도자가 성주라는데 길림청년들도 그 녀석들처럼 〈리상촌〉이라는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지 어디 한번 우리 〈리상촌〉에 대한 견해를 솔직히 터놓아보아라.》

《나는 〈리상촌〉을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국에 쫓겨와서 방황하던 조선동포들을 한곳에 모여놓고 오붓이 살아보자고 꾸린것이 〈리상촌〉이겠는데 왜 나쁘다고 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료하진펄에 이런 정도의 조선동네를 만들어놓은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로인님들이 마을을 꾸리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변로인은 그 말을 듣자 흡족해서 코수염을 쓰다듬었다. 말투도 《너희》로부터 《자네》로 변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숭고한 혁명적의리의 력사는 영원합니다

현종웅

해마다 그러했듯이 올해에도 7월을 앞두고 여러 나라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조직되고있습니다. 그 소식은 제가 사는 단동땅에도 전해지고있습니다.

그런 소식에 접할 때면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아온 저의 가슴은 류다른 감회에 잠기군 합니다.

그래서 나이 70을 넘긴 후로 품어오면서도 필력을 저어하여 선뜻 들지 못했던 붓을 마침내 정히 들었습니다.

정작 이야기를 시작하고저 추억의 돛을 돌리니 절세의 위인들의 모습이 온통 눈앞에 어려와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혁명의 려명기에 맺으신 우리 현씨일가와의 인연을 끊을수 없는 혈연의 정으로 귀중히 여기시고 숭고한 의리의 절정에서 꽃피워주시였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끝없이 빛내여주시였고 또 이어주시는 전설같은 이야기는 우리 해외동포들도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칭송하는 위대한 태양의 품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운데 하나로 될것입니다.

고유수시절로부터 60여년

저는 저의 이야기를 1990년 4월 어느날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벌써 28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내내 그날을 안고 사는 저에게는 어제런듯 생생한 일입니다.

그해 봄 어느날 저희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저의 어머니 김순옥과 그 자녀들을 불러주신다는 천만뜻밖의 소식에 접하게 되였습니다.

(타향에서 살면서 긴긴 세월 늘 마음속으로 그리던 어버이수령님, 만민이 태양으로 떠받드는 수령님께서 어떻게 되여 우리를 찾아주실가?)

한편 꿈만 같았고 한편 놀라운 일이였습니다.

불현듯 저의 뇌리에는 어머니 김순옥이 수십년간 정히 보관하던 놋그릇이 펀뜩 떠오르는것이였습니다.

(어머니가 1929년 고유수에서 살 때 혁명가들에게 식사를 대접해올린적이 있었다는 그때와 무슨 연고가 있어서가 아닐가. …하지만 이제는 60여년전의 일이 아닌가.)

사실 오래전의 일이지만 어머니는 농에 정히 보관해둔 놋그릇을 가끔가다 꺼내놓고 깊은 생각에 잠겨 파란많은 세월 마음속으로 높이 모셔온분에 대한 하염없는 추억에 잠기군 하였습니다. 고유수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때의 김성주동지에 대한 추억이였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그때의 일을 연줄로 어버이수령님을 찾아가 뵈올가 하는 간절한 마음을 여러번 먹어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언감생심 그런 생각을 하다니 하고 자기를 자제하여왔었습니다.

바로 그 놋그릇이 어버이수령님의 부르심을 받는 꿈같은 연줄을 이어놓게 되였다는 사연을 우리는 평양에 체류하는 기간 비로소 알게 되였습니다.

저희들이 막상 평양으로 떠나자니 어머니가 10년나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앓는데다가 기억력도 그전같지 않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것이 안타까운 일이였습니다.

하지만 오매불망 그리던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게 된다는 오직 그 하나의 기쁨으로 벅적 들끓으며 우리 일행은 어머니를 부축하고 급히 평양을 향한 려정에 올랐습니다.

평양에 도착하여 국빈들을 위한 초대소에 려장을 푼 저희들은 먼저 어버이수령님께서 깊이 관심하여주신 일정에 따라 수령님의 사랑이 어린 새옷들로

단장하고 처음으로 조국의 현실을 체험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그처럼 기다리던 날, 어버이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신 영광의 날은 바야흐로 4월 15일을 며칠 앞둔 4월 10일이였습니다.

저희 일가가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에 당도하였을 때 아, 이게 웬일입니까. 어버이수령님께서 먼저 나와계시다가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두팔을 벌리시고 저희들에게로 마주 걸어오시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어푸러질듯 달려가 무작정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와락 안기였습니다. 순간 눈앞이 흐려지고 그 무엇인가 이름할수 없는 정회가 가슴에 뜨겁게 파고드는것이였습니다.

이윽고 저희들이 마음을 진정하고 자리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어머니의 주름깊은 얼굴의 그 어디에서인가 22살때의 옛 모습을 찾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안광에 어느덧 형언할수 없는 강렬한 감회의 빛이 어리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저희들을 둘러보시면서 못내 감개에 젖은 음성으로 이렇게 교시하시는것이였습니다.

《지난날 나의 혁명활동을 적극 도와준 동무들과 자리를 같이하니 매우 기쁩니다. 오늘 동무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회포를 나누자고 합니다.》

(혁명활동을 적극 도와주었다니?)

극상해서 식사를 몇끼 보장해드린 일이 있다는것밖에 모르던 저희들은 일순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다음순간 어버이수령님께서 저의 할아버지 현하죽에 대하여, 어머니 김순옥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시여서야 저희들은 의의깊고 감개무량한 자리가 어떻게 마련되였는지 다소나마 알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다는 모르던 할아버지의 일대기와 어머니의 일이였습니다.

원래 평안북도 박천이 고향인 할아버지 현하죽이 살길을 찾아 헤매이다가 동북지방의 거치른 벌판에 보짐을 풀고 주추돌을 놓기 시작한것은 3.1인민봉기직후였고 고유수땅에 정착하게 된것은 1927년초부터였다고 합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추억깊으신 교시가 저희들의 폐부에 뜨겁게 흘러들었습니다.

《김순옥의 시아버지인 현하죽선생은 오랜 독립운동자의 한사람이였습니다. 내가 고유수에서 혁명활동을 할 때 그 일대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를 하죽선생이라고 불렀는데 그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현하죽선생은 우리 아버지와도 아주 친한 사이였으며 독립운동에 뜻을 같이한 동지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유수에서 혁명활동을 할 때 현하죽선생의 집에 머물러있었고 오가자에 가있을 때에는 문조양동무의 집에 가있군 하였습니다.》

조선혁명의 대중적지반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리시던 고유수시절에 감회깊은 추억의 닻을 내리시고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현하죽선생의 집에 가있으면서 신세를 많이 졌다고, 사실 그때에는 집에 찾아오는 손님에게 밥 한끼 해먹인다는것이 간단하지 않았다고, 농사를 지어 지주에게 소작료를 바친 다음 남은 식량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집에 찾아오는 혁명가들에게 밥을 해먹이고나면 집사람들은 거의 굶어살아야 하였다고 하시는것이였습니다.

멀리 흘러온 력사의 기슭, 그 모든것을 돌이켜보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안광에 어느덧 특별한 감개가 어리여있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자신께서는 그때 같이 투쟁하던 동무들과 함께 현하죽선생의 집에 가서 오래동안 숙식을 하면서 지냈다고 하시면서 《지금 그때 일을 생각하면 현하죽선생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현하죽선생의 그 은정을 지금도 잊지 않고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않을것입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모두 합쳐 한두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으로 알고있는 그때의 일,

아득히 흘러간 그 일을 아직까지 잊지 않으시고 어쩌면 이다지도 깊은 감회와 기쁨속에 추억해주신단 말입니까.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저의 아버지와 삼촌에 대하여서도 《현하죽선생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은 현화균이였고 둘째아들은 현균이였습니다. 현화균이 김순옥의 남편이였습니다. 그들에 대하여서는 내가 잘 압니다. 현화균은 량심적인 사람으로서 나를 성의껏 도와주었으며 조선혁명군의 활동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농민동맹에서 활동하였습니다. 현균도 똑똑한 사람이였습니다. 그는 〈ㅌ.ㄷ〉성원이였고 조선혁명군 대원이였습니다.》라고 감회깊이 회억하시면서 김순옥의 아들과 며느리, 손녀들은 고유수에서 떠나 쌍양현에서 살았기때문에 자기의 할아버지인 현하죽선생의 활동과 고유수에서 있었던 일을 잘 모를것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백발을 인 어머니뿐아니라 할머니를 따라온 손녀까지도 소리없이 눈물을 흘리는 참으로 감동적인 순간이였습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우리 일가의 일을 잊지 않으시고 이처럼 감격적인 자리를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그지없는 인정의 세계에 뜨거운것이 끝없이 북받쳐올라 저는 어쩌면 오랜 세월 그때의 일을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까지 환대해주신단 말입니까,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수령님,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목메여 말씀올리였습니다.

그러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이 내가 60여년전의 일들을 잊지 않고 이렇게 만나주고 영광을 베풀어주어 감격을 금할수 없다고 하는데 어찌 그 간고한 혁명활동시기에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하여 잊을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시며 저희모두를 다시금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는것이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너무나도 감격이 극하여 그저 눈물만 흘리는 저희들을 보시며 모두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음식을 많이 들어야 하겠다고 거듭거듭 이르시였습니다.

단란한 한가정의 분위기에 휩싸인 저희들은 수령님께서 장수하시기를 바라는 노래도 불렀습니다.

우리 현하죽일가의 가슴속에 뿌리내린 이 절절한 념원은 조선의 위대한 태양을 모신 그 나날로부터 대대로 저희들의 가슴속에서 한시도 떠난적 없는 최대의 념원이였습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 바라보는것만 같은 행복의 절정에서 시간이 어떻게 흘렀던지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의 일이 꼭 꿈만 같습니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김순옥의 셋째며느리인 저의 안해 김명애가 어느 지방에서 살았는가도 다정히 물어주시고 그 지방에서 살던 사람을 만나기는 처음이라고, 그 지방 사람을 오래간만에 만나니 반갑다고 하시며 친자식을 대해주듯이 더없이 각근하게 위해주시였습니다.

일찌기 아버지를 잃고 추억할만 한 사진 한장도 가지고있지 못하여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내심 부러워하던 저와 시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받아보지 못한 저의 안해는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어 친아버지를 찾듯 스스럼없이 《아버지!》라고 목메여 부르며 터져나오는 오열을 참지 못하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은 진정 저희들의 아버지이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이 세상 가장 고결한 의리와 다심한 사랑이 그처럼 절절하게 부르고싶었던 그 부름에 다 함축되여있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마련하신 영광넘친 그날의 자리는 결코 지나온 력사를 추억하기 위한 회우가 아니였습니다.

생사를 같이하는 혁명의 길을 헤쳐오다가 먼저 떠나간 동지들이 남기고 간 혈육들을 책임지고 보살피시는것을 자신께서 하셔야 할 응당한 사명으로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혁명적의리의 세계가 감명깊이 펼쳐진 참으로 의미깊은 자리였습니다.

저희들과 헤여지기에 앞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친아버지의 심정이 되시여 불편한 어머니를 위하여 모처럼 마련하신 고급밀차를 비롯하여 저희들 매 가족에게 사랑의 선물을 가득 안겨주시였습니다.

그날 저녁이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해당 일군에게 저희들을 만나시던 때를 상기하시면서 김순옥의 아들딸, 며느리들이 자기 어머니가 나에게 인사말도 변변히 하지 못하여 몹시 가슴아파한다는데 김순옥이 80이 넘은데다 당황하여 그랬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고 합니다.

저희들을 또다시 울리게 하는 눈물겨운 말씀이였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어머니가 그저 눈물만 흘리면서 어버이수령님께 인사말씀 한마디 변변히 올리지 못한것이 저으기 아쉬웠었습니다.

저희들을 더욱 울리게 한것은 그날이 마련되기까지의 일에 대하여 일군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과학기술을 중요한 경제전략으로 틀어쥐고 내밀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시기에만도 기업소에서는 이미 있던 대형보링반, 대형타닝반을 비롯한 수십대의 중요설비들에 대한 CNC화를 실현하고 그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사실 한두대도 아닌 많은 대형설비의 CNC화를 빠른 기간에 모두 실현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자체의 힘을 믿고 과학기술을 틀어쥐고나갈 때 능히 설비의 현대화도 실현하고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발전설비와 대상설비생산을 더 잘해나갈수 있다는 일념을 안고 이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그 과정에 그들은 설비들의 CNC화실현에서 난문제로 제기되였고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해야만 했던 여러 사보전동기와 유성감속기 등을 새롭게 연구제작하고 그 생산공정까지 꾸려놓게 되였으며 종당에는 설비현대화실현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종전에는 매우 힘든것으로 여기던 열처리공정의 CNC화도 실현하여 화력발전소분쇄기대치차를 비롯한 모든 대치차들의 성능을 개선하고 그 수명을 훨씬 늘이였다.

합리적인 설계방안을 토의하고있는
설계연구소 일군들

이와 함께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새로운 기술에 의한 공정확립에도 박차를 가하여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그로 하여 탄산가스용접공정의 주체화가 실현되고 여러가지 알카리산화착색공정, 자동담브공정 등 여러 공정들에서 수많은 기술혁신안들이 창안도입되여 제품의 질을 높이면서도 종전보다 적은 로력으로 생산성을 훨씬 높이고있다.

우리와 만난 련합기업소의 기술일군인 장룡호는 말하였다.

《기업소가 이룩한 성과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것이다. 우리는 이미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고 그에 토대하여 최단기간에 기업소의 주체화, 현대화를 더한층 강화할 다음단계목표를 내세우고 그 관철을 위해 투쟁하고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기업소의 일군들부터가 원격교육대학 학생이 되여 배우고있으며 기술자, 로동자들도 역시 과학기술보급실을 리용하여 선진기술을 습득하면서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풀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자력자강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면서 과학기술을 틀어쥐고나가는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해 기업소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과학기술보급실에서 최신기술을
습득하고있다.

과학기술성과를 생산에 받아들여

설계의 요구에 맞게

생산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해결을 위해

꿈을 키워주는 곳

풍치수려한 모란봉기슭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높은 김정숙탁아소가 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의 숭고한 후대사랑에 의하여 주체37(1948)년에 세워진 탁아소는 지난 70년간 아이들의 고운 꿈을 꽃피워왔다.

얼마전 우리는 어린이들의 생활을 지면에 담고싶어 이곳을 찾았다.

리영옥소장을 따라 우리가 먼저 들린 곳은 실내종합놀이장이였다.

교양6반 어린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기재들을 차지하고 깔깔거리며 놀고있었다.

비행기에 오른 쌍둥이들인 홍위광, 홍위성어린이들과 정재웅, 김예연어린이들이 앞의 비행기를 쏴떨군다며 고운 웃음속에 입술을 앙다무는가 하면 미끄럼대에는 서로 따라잡기에 여념이 없는 아이들도 있었다.

주명숙보육원은 어린이들이 탄 그네를 밀어도 주고 아이들이 놀음에 정신이 팔려 혹시 상할세라 봐주기도 하면서 모든 놀이가 흥미진진하게 흘러가도록 하고있었다.

이어 새참시간이 되자 우리는 어린이들과 함께 식당으로 내려갔다.

식탁에는 먹음직스러운 빵과 산유가 올라 어린이들을 기다리고있었다.

어린이들이 모두 실하다는 우리의 말에 리영옥소장은 《나라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신선한 과일과 영양식품들을 우선적으로 보내주고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기 위하여 영양가가 높은 음식들로 다양하게 식사조직을 하고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식사알림판에는 어린이들의 영양학적요구에 맞는 음식들이 적혀져있었다.

탁아소에서는 체질이 약한 어린이들에 한해서는 자체로 보약도 만들어서 먹이고있었다.

그래서 모든 어린이들이 키나 몸무게에서 다 정상수치에 도달하고있었다.

우리가 들린 지능놀이실에서도 어린이들이 자기마음에 드는 놀이에 여념이 없었다.

교양15반의 어린이들이 수자놀이며 기차놀이, 쪼각그림맞추기 등을 하고있는데 제법이였다.

리춘화 공훈보육원은 단순한것으로부터 복잡한것으로, 피동적행동으로부터 능동적행동으로 변화발전되는 어린이들의 지능은 이 과정에 봄싹처럼 움트고 계발된다고 이야기해주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많은 놀이감들이 보장되고있지만 어린이들의 서로 다른 개성적특성에 맞게 많은 보육원들이 수많은 지능놀이감들을 자체로 만들어 어린이들의 지능계발에 리용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의 말을 들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졌다.

한주일동안 어머니들은 자식들곁에 없어도 어머니와 같은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는 보육원들에 의해 아이들은 조국의 미래로 더 밝게, 더 활짝 피여나고있음으로 해서였다.

하기에 춤실이며 실내자연관찰실 등 탁아소의 그 어디에서 만나는 어린이들모두의 얼굴이 그리도 밝은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김정숙녀사의 념원이 그대로 현실로 꽃피고있는 탁아소에서 더 밝아질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며 이곳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김슬기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자체로 지능놀이감들도 만든다.

몸무게와 키를 정상적으로 잰다.

지능놀이시간

비행기타고 씽씽

새참시간

유희장에 울려퍼지는 사랑의 노래

만경대유희장이 휴식의 한때를 즐기는 사람들로 흥성이고있다.

얼마전 만경대유희장을 찾은 우리가 먼저 들린 곳은 1계단유희장이였다.

유희장에 들어서자마자 달음박질하듯 하며 각종 유희기구에 저저마다 올라앉는 아이들과 청춘남녀들의 모습은 유희기구들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케 하였다.

회전그네, 2중회전반, 축전지차, 공중자동차, 회전자동차 등은 아이들의 판이였다.

유희기구를 두세번 타고도 성차지 않아 또 타겠다고 부모들에게 떼를 쓰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제법 유희기구에 보란듯이 올라앉아 손을 흔들며 활짝 웃는 아이들도 있다.

그러한 자식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기쁨이 어려있었다.

아이들이 유희기구들에서 좀처럼 떨어질줄 모르고있을 때 다른켠에서도 유희시설들을 리용하며 탄성을 터치는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떠날줄 모른다.

관성단차를 타고서는 조마조마한 마음을 안고 안전장치를 꽉 잡고있는 처녀들, 자기는 타지 않으면서도 남들이 기구를 타고 《혼쌀》나는것을 보는 재미에 입을 다물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유희장에 웃음바다를 펼쳐놓았다.

보통강구역 류경1동에서 살고있는 차충혁은 《집사람과 관성단차를 타보았는데 기분이 상쾌합니다. 피로가 가뭇없이 사라지고 더욱 새힘이 솟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전기자동차에 앉아 승벽내기로 운전대를 돌리는 남녀로소가 있는가 하면 물미끄럼배를 타고 사람도 배도 물과 함께 한덩어리로 어우러져 뽀

얀 물갈기속에 잠기면서도 《와-》 하고 호탕하게 웃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늘과 땅이 한데 어울려 돌아가는듯 급속도로 회전하는 2중회전반, 커다란 왕문어가 통채로 춤을 추는듯 한 문어회전반, 어른, 아이 할것없이 찾는 오락관과 광선총사격관 등 유희오락기구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딜 가나 랑만과 희열에 넘친 사람들로 흥성이였다.

2계단유희장 역시 다름바 없었다.

멀리서 보아도 첫눈에 안겨오는 2회전관성렬차는 누구든 타보고싶어하는 유희장의 상징인듯싶다.

곡선주로를 달리다가 순식간에 련속 두바퀴 회전하여 눈앞이 아찔하게 하는 2회전관성렬차, 렬차를 탄 사람들은 물론 아래에서 구경하는 사람마저 저도 모르게 눈을 꽉감고 숨을 죽이게 한다.

대성구역 룡흥3동에 살고있는 황철호로인은 관성렬차에서 내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 나이 60이 넘었습니다. 관성렬차에 올라앉았을 때까지만 해도 좀 두려운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타고나니 한번 더 타볼 욕망이 생깁니다.

허허허-

오늘 유희장에 와서 몸도 마음도 10년은 더 젊어지는것만 같습니다.》

2회전관성렬차뿐만이 아니였다.

사람들의 웃음이 봄날의 꽃잎들처럼 바람결에 흩날리는듯싶은 배그네와 유압식그네, 할아버지들이 탄 비행기를 손자, 손녀들이 탄 비행기가 《격추》하는 회전비행기…

정말이지 땅우에도 웃음판, 하늘중천에도 웃음판이였다.

유희장에 울려퍼지는 사람들의 그 흐뭇한 웃음소리가 어찌 하루, 한순간의 즐거움이 가져다주는것이라고만 하랴.

진정 유희장에 넘치는 웃음소리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 평등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려가는 인민의 기쁨이 메아리되여 울려퍼지는 우리 조국에 대한 사랑의 노래였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임정국, 김영호

화목하고 단합된 인민반사람들

평안남도 평성시 양지동 176인민반은 화목하고 단합된 인민반들중의 하나이다. 이곳 인민반의 주민들은 성격과 취미, 직업 등이 다르지만 서로 돕고 위해주며 마음과 뜻을 합쳐 자기가 사는 마을을 알뜰히 꾸려가고있다.

인민반주민들이 이렇게 된데는 세대들에 좋은 일이 생기면 남먼저 찾아가 축하해주고 또 환자가 생기면 따뜻이 보살펴주며 색다른 음식이 생겨도 인민반주민들부터 생각하면서 인민반의 모든 주민들을 자기의 친혈육처럼 대해주는 이곳 인민반장의 진정어린 노력과 관련된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는 진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곳 인민반장이 바쳐가는 진정은 그대로 인민반주민들을 감동시켰고 그들이 자기 인민반을 한가정처럼 여기게 하였으며 그들모두가 인민반장의 모범을 따라배우게 하고있다. 하기에 이곳 인민반에서는 어느 세대의 자식이 군대에 나가거나 대학에 입학하는 등 좋은 일이 있어도 그러하지만 환자가 생기는 경우에도 모두가 자기 일처럼 생각하며 도와나서는 미풍이 넘쳐나게 되였다.

언제인가 4층 5호에 사는 세대주가 뜻밖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곳 인민반사람들은 너나없이 병원에 찾아가 환자의 수술결과를 기다리며 한밤을 지새웠고 수술후에는 그의 회복을 위해 매일과 같이 병원으로 찾아갔는데 그 모습을 보며 이 병원의 의사, 간호원들은 감동을 금치 못해하였다고 한다.

민속놀이와 민족음식만들기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 나날 인민반은 보다 화목하고 단합되게 되였으며 그것은 그대로 마을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도 성과를 이룩하게 하였다.

지난해 인민반에서는 마을앞에 꽃밭이며 어린이놀이터 등을 새롭게 꾸리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게 되였다. 그때 인민반주민들은 제 마을을 꾸리는 일인데 한번 본때있게 하여 인민반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자고 하면서 공사에 한사람같이 달라붙었다. 세대주들은 속보판을 밤새 만들어 세우기도 하였고 세멘트를 비롯한 필요한 자재들을 해결하기도 하였으며 가정부인들은 후방사업을 하며 남편들을 도와나섰다.

인민반주민들이 마음먹고 달라붙으니 어렵게만 생각되던 꾸리기사업이 오히려 계획하였던 날자보다 앞당겨 멋들어지게 완성될수 있었다.

우리 선수 이겨라!

오늘날 일요일이나 명절같은 때 이곳 인민반주민들이 다양한 체육경기로 흥성이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단합된 집단》, 《화목한 인민반》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김금순인민반장은 자기 인민반의 주민들은 인민반생활에서도 열성적이지만 자기 직장, 자기 일터에서도 혁신자들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글 본사기자 강은순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로인을 찾아 건강상태를 알아본다.

인민반을 문화적으로 꾸려간다.

인형극 창작가들

《정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다. 만화영화들로 하여 인형극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내 생각이 잘못되였다는것을 알았다.》

《인형극 〈매미와 개미〉를 비롯한 작품들에서 주인공들의 행동 하나, 대사 하나도 참신하게 형상한 극단창작가들에게 인사를 드리고싶다.》

이것은 지난 5월 강원도예술극장에서 진행한 평양인형극단의 공연을 보고 도의 청소년들을 비롯한 관람자들이 한 말이다.

평양인형극단의 공연은 평양과 지방에서 인기를 모으고있다.

무대에 오른 인형극 《우리 분단 음악회》, 《왕구렝이를 쳐부신 소년》, 《뿔을 구부린 양》, 《매미와 개미》 등의 작품들을 보고 사람들은 인형극창조에 바쳐가는 창작가들의 남모르는 수고를 생각하게 된다.

평양인형극단에서는 발전하는 시대적요구에 맞는 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해 서로의 지혜를 합쳐가고있다.

리희성, 정철수작가들은 시기마다 제기되는 국가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작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그 과정에 행복은 그 누가 가져다주지 않으며 자기 손으로 창조해야 한다는 종자를 찾아쥐고 인형극 《매미와 개미》를 창작하였으며 모든 일에서 서로가 힘을 합칠 때 성공할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인형극 《끌지 못한 수레》, 공중도덕을 잘 지키자는 이야기를 담은 인형극 《생일날에 있은 일》을 비롯한 여러 작품들을 빠른 시일안에 창작할수 있었다.

최만금, 정무혁연출가들과 김영명, 황철미술가들은 지난 시기의 인형극들과 달리 대사를 줄이고 행동선을 보장하면서도 무대를 립체감이 나게 꾸리기 위해 가시선(가림막)을 더 설치함으로써 무대의 종심이 보장되여 누구나 인형극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게 하고있다.

로영일제작사 역시 모든 인형들을 작품의 상에 맞게 만들기 위해 인형 하나하나에도 사색과 열정을 기울여가고있다.

인형조각 하나에도 품을 들인다.

창조훈련에 열중하고있는 배우들

인형을 실감이 나게 제작하기 위해

인형극배우들의 열의도 대단하다.

배우과장 공훈배우 차진매와 손경남, 조성철, 김선화, 성영숙배우들은 작품의 역을 맡으면 중앙동물원에 나가 동물들의 속성을 연구하면서 관찰을 세밀히 하고있으며 유치원, 소학교들에도 나가 아동들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그 과정에 공훈배우 홍란히와 장일녀, 조영란배우들은 개미의 종류가 몇가지나 되는데 여기서 기본은 로동개미라는것을 비롯하여 작고 연약한 개미의 생태학적특성을 옳게 파악하였으며 개미는 작아도 제 몸집보다 몇배나 큰것도 단결된 힘으로 끌고간다는것과 무리(집단)지어 살며 생존을 유지한다는것 등을 작품에 구현하기 위해 탐구를 심화시킴으로써 인형조종을 더 생동하게 할수 있었다.

오늘 평양인형극단 창작가들과 배우들은 이룩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심리를 명중하는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해 탐구의 낮과 밤을 보내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습기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인형극 《뿔을 구부린 양》의 한 장면

인형극 《매미와 개미》의 한 장면

인형극 《우리 분단 음악회》의 한 장면

수 기

30여년전의 일을 돌이켜보며

완전히 잘리웠던 저의 팔이 이어진 때로부터 어언 3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절단되였던 저의 팔을 다시 이어주기 위해, 그 기능을 성한 팔과 꼭같이 회복시켜주기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해가던 철도성병원 의료일군들의 모습을 진정 잊을수 없습니다.

그때 저는 20대의 처녀로서 평양역안내원으로 일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로 왼쪽팔웃부분이 잘리우게 된 저는 의식을 잃고 철도성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였습니다. 당시 평양역의 일군들과 동무들은 잘리운 저의 팔을 의사들에게 안겨주면서 《선생님, 혜옥동무의 팔을 이어주십시오. 꼭 이어주십시오.》라며 눈물을 쏟고 또 쏟았다고 합니다.

그때 저를 지켜보는 의사들의 심정은 정말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와 같은 환자를 수술해본 경험도 없고 혹 수술을 한다해도 생명은 물론 잘라진 팔을 이어붙일수 있다는 의학적담보마저도 없었기때문이였습니다. 그러나 이곳 의료집단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불구가 된 저를 사회와 집단앞에 성한 사람으로 떳떳이 내세워야 한다는 결심을 안고 수술에 달라붙었습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최기협과장을 비롯한 수술성원들은 심하게 손상된 절단부위에서 혈관, 신경등을 찾아 잇느라고 무진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수술을 시작한지 여러 시간이 흐르다나니 저의 맥박과 혈압이 급속히 떨어지면서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술을 계속하는가 마는가 하는 환경이였지만 의사들은 소생대책을 세우고 방도를 찾아내며 수술을 계속하였습니다. 무려 10시간의 노력끝에 드디여 저의 팔은 이어지게 되였으며 이어진 혈관으로는 피가 흐르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줄이 막히여 이어놓은 팔의 살색이 죽어들어가며 저의 생명을 위협하였습니다. 의사들이 피를 통하게 하느라고 3시간동안이나 저의 곁에서 모든것을 다했지만 결국 저는 쇼크상태에 빠지게 되였습니다.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한다면 이어붙인 팔을 다시 잘라내야 하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수 있는 최악의 순간이였지만 의료집단은 수술을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저를 위해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였습니다. 못한것이 있다면 당시로서는 현대의학이 알지 못하는 치료방법을 찾아내는것이였는데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것이였습니다. 하지만 이곳 의료집단은 그 위급한 속에서도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쳐 새로운 치료방법을 창조하였으며 그로 하여 생사기로에 놓여있던 저는 끝내 소생할수 있었습니다.

그후 이어진 저의 팔이 자기 기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의사들과 간호원들이 바친 노력은 참으로 눈물겨운것이였습니다. 그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 병문안을 하며 힘을 주고 고무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대로 불사약이 되여 저의 팔의 기능은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여갔으며 그래서 저는 이제는 퇴원해도 되지 않을가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였습니다. 하지만 이곳 의료집단은 저의 팔의 상처자리마저 없애기 위한 의사협의회를 진행하며 마음을 쓰고있었습니다.

정말 저를 위해 바쳐가는 그들의 정성은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진정에 떠받들려 6차에 걸치는 피부이식수술까지 받게 되였으며 그 과정에 상처자리를 말끔히 없앨수 있었고 팔의 기능도 완전히 회복될수 있었습니다.

김혜옥의 팔을 수술하는 철도성병원 의사들
주체74(1985)년 3월

이렇게 저는 이곳 의료집단의 지극한 정성이 창조한 기적에 의해 잃을번 한 팔을 되찾게 되였고 오늘까지 평양역에서 일하며 삶을 빛내여가고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이 차넘치는 우리 조국, 무상치료제의 혜택이 꽃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아니였다면 저는 이미 불구의 몸이였을것이라고.

하기에 오늘도 조국의 곳곳에서는 저의 팔이 이어지는것과 같은 세상을 놀래우는 인간사랑의 기적들과 전설들이 끝없이 펼쳐지고있는것입니다.

평양역 려객지령원 김혜옥

녀성교육자의 추억

리경숙

훌륭한 선생님에게 자식들을 맡기고싶어하는것은 학부형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하다면 그러한 선생님의 모습은 과연 어떤것인가.

우리는 서성구역 하신소학교 교장 인민교원 리경숙에 대한 이야기로 이 물음에 대답하려고 한다.

리경숙교장은 18살 처녀시절부터 오늘까지 43년을 교단에 서있다.

수십년세월 누가 알아주건말건 오로지 후대교육사업에 자기의 한생을 바쳐가는 그의 인생길에는 추억도 많다.

주체88(1999)년 9월 하신소학교 교장으로 임명된 그가 처음으로 시작한것은 학생들의 교육에 콤퓨터를 리용하기 위한 사업이였다.

당시 촬영기로 찍어 만든 편집물은 학생들에게 모든 사물현상의 외적현상만 보여줄뿐 내적현상 즉 그 원리를 실감있게 보여줄수 없었다.

그는 소학교의 직관교육에 콤퓨터를 도입하여 교육의 질을 한계단 발전시킬 결심을 안고 다매체편집물을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모든 일이 쉽게 되지 않았다. 그는 물론이고 많은 교원들이 콤퓨터를 다루어본 경험도 없었고 더우기 다매체편집물이라는 말도 귀에 생소하였던것이다.

교수준비를 잘하도록

어느날 그는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만든 편집물에 결함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교육학적요구를 잘 모르는 전문가들이 편집물들을 제작하다보니 기술적측면에서는 완벽하나 나어린 학생들의 심리에 맞게 편집물이 완성되지 못하였던것이다.

이것은 그에게 편집물제작사업을 학생들의 준비정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교원들이 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

그는 다음날부터 모든 교원들이 콤퓨터를 배우도록 요구성을 높여나갔다. 점차 교원들의 콤퓨터실력이 높아지자 그는 편집대본작성과 화면내용, 화면설명과 효과음악 등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갔다.

그 나날 콤퓨터전문가를 만나기 위해 대소한의 추운 날씨를 무릅쓰고 밤길을 걷기도 하였고 콤퓨터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해 평양콤퓨터기술대학 《학생》이 되기도 한 그였다.

어떤 때에는 하나의 화면구성을 놓고 교원들과 밤늦도록 토론을 거듭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그는 교원들과 힘을 합쳐 1년도 못되는 기간에 마침내 소학교 8개 과목에 600시간분의 다매체편집물 《최우등생》을 만들어 교수에 리용하게 되였다.

콤퓨터편집물을 리용하니 좋은 점이 많았다.

단순한 정화상이나 도형, 록화자료복사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생동하게 움직이고 만화영화, 과학영화를 방불케 하는 다매체편집물들은 소학교학생들의 심리에도 맞고 과학적원리도 알기 쉽게 리해시켜 학생들의 실력을 비할바없이 높아지도록 하였다.

초, 고급중학교가 아닌 소학교에서 처음으로 교수의 콤퓨터화를 실현한 자랑찬 성과는 그대로 모든 교육단위들에 일반화되였으며 학교로는 경험을 배우려고 찾아오는 전국의 교육일군들의 발걸음이 그칠새없이 이어지게 되였다.

그가 학생들의 실력을 높여주기 위해 얼마나 고심하고 노력하였는가에 대하여 말해주는 일화들도 적지 않다.

참새의 울음소리는 어떻게 들리는가고 묻는 나어린 학생들의 물음에 대답을 주기 위해 록음기를 들고 교외에 있는 농장에서 하루낮과 밤을 보낸 사실도 있고 교수참관과정에 한 교원이 말을 빨리 하는것을 무심히 스치지 않고 학생들의 동심에 맞으면서도 사고를 계발시켜줄수 있게 말을 부드럽게 하도록 일깨워준 이야기도 있다.

여러차례 전국적인 교편물 및 실험기구전시회에 교원전원이 참가하여 당선되도록 한것도 그렇고 계기때마다 진행되는 교수경연에서 우승의 영예를 떨치게 한것, 3층짜리 새 교사를 건설한것, 학교를 졸업한 수많은 학생들이 평양제1중학교를 비롯한 수재양성학교들에 입학한것을 비롯하여 학교의 모든 성과들에는 그의 성실한 노력이 깃들어있다.

오늘 하신소학교는 교육일군들과 학부형들속에서 교원들의 실력이 높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잘하는 학교로 불리우고있다.

하기에 그는 후대들을 키우는 교육자라는 남다른 긍지속에 지나온 나날들을 감회깊이 회억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상식

가을철 보양식품 왕새우

왕새우는 예로부터 전어, 추어와 함께 가을철 3대보양식품으로 꼽히고있다.

왕새우는 9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가을과 겨울철에 잡은것이 가장 맛이 좋은데 그것은 이 시기 단맛을 내는 글리신함유량이 제일 높아지기때문이다.

왕새우는 맛이 달고 칼시움, 린, 철, 키토잔, 타우린, 알라닌 등 각종 영양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고단백저카로리식품이다. 왕새우는 여러가지 필수아미노산을 골고루 갖추고있지만 카로리가 돼지고기의 절반도 안된다.

왕새우를 매일 조금씩 정상적으로 섭취하면 저혈압이나 빈혈 등을 치료할수 있으며 이발과 다리도 튼튼해진다고 한다.

왕새우는 해독작용도 하며 위궤양이나 생손앓이, 동상, 종기, 체했을때 먹으면 좋다고 한다.

왕새우속에 들어있는 타우린은 망막의 발달을 촉진하고 시력을 회복시키는 작용을 하며 피속의 콜레스테롤수치를 떨구어준다.

왕새우는 아르기닌성분을 일반물고기들보다 2~3배나 많이 함유하고있어 뛰여난 정력증진효과도 나타낸다.

* * *

조국이 있어 인생은 빛난다

리영진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생일인데 시간을 좀 내세요. 온 집안이 다같이 미림승마구락부에 놀러가자요.》

귀여운 딸의 목소리를 뒤에 남기고 금릉운동관 사장 리영진은 집을 나섰다.

아닌게 아니라 그는 딸의 말대로 가족과 함께 미림승마구락부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딸과 약속을 할수가 없었다. 자기의 지나온 생활이 행복은 향유할 때가 아니라 창조할 때 그 기쁨이 더 크다는것을 절실히 말해주고있기때문이였다.

주체63(1974)년 6월 조국에 귀국한 그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대외문화련락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였다.

그러던 어느날 그에게 일본에 있는 부모들로부터 이런 전화가 걸려왔다.

《영진아, 부모들은 조국에 올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배려로 제일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군 하는데 죄스럽구나. 조국에 무엇인가 기여하고싶은데 네가 좀 알아보고 알려주었으면 좋겠구나.》

리영진사장은 부모들의 전화를 받고 행복을 누릴줄만 안 자신이 민망스러웠다.

그래서 조국에 필요한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하였다. 그 과정에 나날이 발전하는 조국의 경제와 더불어 사람들의 문명수준도 날을 따라 높아지고 그에 맞게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일떠서고있는 조국의 벅찬 현실을 목격하게 되였다.

그는 문화정서생활기지를 하나 일떠세울 결심을 하고 조국의 해당 일군들과 토론을 하였으며 일본에 있는 부모들에게도 알려주었다.

나라의 적극적인 방조와 부모들의 지지속에 그는 금릉운동관건설을 내밀게 되였다.

조국에서는 평양시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부지를 잡아주고

귀국선에 올라(가운데)

리영진의 가정

《금릉운동관》이라고 이름도 지어주었으며 강력한 설계집단과 건설집단을 무어주어 건설이 빠른 시일안에 진행되도록 적극 밀어주었다.

그 나날중에는 리영진사장이 제일 잊지 못하는 때가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제재와 압살책동으로 자금난에 부닥쳐 건설이 중지되였을 때의 일이였다.

그는 더 말할것 없고 일본에 있는 부모들도 안타까와하였다.

바로 그러한 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여러차례 금릉운동관건설과 관련한 교시를 주시였으며 나라에서는 거액의 자금을 돌려주어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여주었다.

주체102(2013)년 10월 번듯하게 일떠선 금릉운동관을 보며 그는 고마움의 눈시울을 적시였다.

이역에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아안을 때에도 그래, 조국에서도 그래 언제나 따사롭기만 한 조국의 사랑이였다.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그는 사격장, 스쿼쉬장을 비롯하여 봉사업종을 하나하나 늘여나갔다.

그 과정은 헐치 않았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는 일본에서 떠나올 때 아버지가 하던 말을 되새기군 하였다.

《조국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바치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애국의 목표를 높이 세워라. 목표가 있고 그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인생도 성공한다.》

그래서 리영진사장은 애국은 말로 하는것이 아니라 심장을 바쳐 실천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였으며 자기가 정한 인생의 목표를 향해 힘차게 노를 저어갔다.

안해인 박성신부사장도 그를 적극 뒤받침해주었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 함께 나가 사격장에 필요한 총들도 구입하였고 모든 봉사항목들이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데 집중되도록 하였다.

그의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금릉운동관을 찾는 사람들은 률동운동실과 스쿼쉬장, 사격장, 물놀이장, 종합기재운동실 등에서 희열과 랑만속에 즐거운 하루를 보낼수 있게 되였다. …

지나간 어제를 돌이켜보며 그날 저녁 리영진사장은 예순번째 생일을 축하해주는 아들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인민들이 기뻐한다면 더 바랄게 없다. 나는 그 기쁨속에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있다.》

하기에 일본에서 녀맹사업을 오래동안 해온 그의 어머니가 조국방문기간 금릉운동관에 와보고는 일본에서 이런 자리에 봉사기지를 세우는것은 엄두도 낼수 없는 일이다, 따사로운 조국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모두가 적극 노력하자고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리은별

더 좋은 래일을 앞당겨가는 천내사람들

우리는 얼마전 강원도 천내군을 찾았다.

군면적의 많은 부분이 산림으로 되여있는 군은 다른 군들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군에는 조국인민들속에 잘 알려진 울림폭포며 원산제염소, 룡담양어장을 비롯한 이름난 곳들이 많다.

특히 군의 공업에서 주도적인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건재 및 석탄공업은 자랑할만 한것이다.

하기에 우리가 먼저 찾은 곳도 우리 나라 세멘트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있는 천내리세멘트공장이였다.

만부하로 돌아가는 설비들의 동음에서 우리는 이곳 세멘트생산자들의 창조와 혁신의 드높은 숨결을 느낄수 있었다.

우리와 만난 공장의 일군인 류승철은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우리 공장로동계급의 기세는 대단합니다. 지금 공장의 전체 종업원들은 경제강국건설장들에 더 많은 세멘트를 생산보장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먼저 들린 곳은 소성직장이였다.

이곳에서는 생산자들이 소성로의 현대화와 주체화실현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스스로 찾고 지혜와 열정을 바쳐 크링카생산능력을 높여나가고있었다.

산소농도측정에 의한 소성방법을 더욱 완성한 결과 교대당 크링카생산계획을 125%로 높이였다는 공훈소성공 채종오의 말에는 과학기술의 힘에 대한 확신이 담겨져있었다.

소성로의 열기인양 더 많은 크링카를 생산할 열의로 달아오른 생산자들이 과학기술을 앞세워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갈 때 세멘트직장의 생산자들도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려 세멘트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었다.

이러한 성과는 소성직장과 세멘트직장에서만이 이룩되고있는것이 아니였다.

소성로에 질좋은 미분탄을 보내주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분탄직장이며 우람찬 발파소리로 원료를 믿음직하게 보장하고있는 석회석분광산 등 공장의 그 어디를 가보아도 혁신의 새 소식을 들을수 있었다.

그들의 모습을 가슴속에 안은 우리는 이어 천내지구탄광련합기업소 문천탄광으로 향하였다.

탄광에서는 더 많은 채탄발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앞세우고 갱작업의 기계화를 다그치면서 석탄생산을 체계적으로 늘이고있었다.

선진적인 채탄방법을 받아들여 종전보다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고있는 승리갱과 련속천공, 련속발파의 동음을 울리면서 굴진전투를 벌려 석탄생산을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은 전차갱 탄부들의 얼굴에는 석탄증산으로 나라를 받들어가는 보람과 긍지가 어려있었다.

우리가 돌아본 천내군의 식료, 피복 등 지방산업공장들에서도 증산의 동음이 높이 울려나오고있었다.

자체의 힘으로 사탕성형기와 빵구이로의 전동기 등을 개조하여 더 많은 식료품들을 군안의 인민들과 어린이들에게 공급하고있다는 기초식품공장의 종업원들과 질좋은 유기질복합비료를 논과 밭에 낸 결과 더 많은 알곡소출을 내다보게 되였다는 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의 연구사의 목소리에도 창조와 노력으로 알찬 열매를 마련해가는 천내사람들의 류다른 자부심이 비껴있었다.

그곳들만이 아니였다.

룡담세멘트공장과 원산제염소, 종어사업소 등에서 많은 세멘트와 소금, 물고기새끼들을 생산하여 도와 여러 부문과 단위들에 정상적으로 보내주고있는 모습도 우리를 기쁘게 하였다.

천내군에서 울려나오는 증산의 동음,

그것은 사회주의의 더 좋은 래일을 위해 높은 생산성과를 안아오려는 이곳 군인민들의 심장의 박동소리였고 부강조국의 기둥을 받드는 초석이 되려는 의지였다.

글 본사기자 전룡진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천내리세멘트공장에서

은정원에서 휴식의 한때를 보낸다.

천내군기초식품공장에서

원산제염소

울림폭포

중국 료녕성 심양시 황고구 녕산중로 138-1호 3-4-2 차영희이모 앞

보고싶은 이모에게

이모, 안녕하십니까.

년로하신 몸에 어디 앓지는 않습니까.

이모부와 조카들도 잘 있으리라 봅니다.

이모를 조국에서 처음으로 만나본지도 어언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모가 조국에 나왔을 때 새 살림을 폈던 제가 이제는 외손녀들을 거느린 할머니가 되였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회억속에 산다고 하는데 그 말이 옳은것 같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이모에 대한 생각을 머리에 떠올릴 때면 지금도 오래전에 이모와 이모부가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보군 합니다.

그럴 때면 어머니의 모습이 절로 떠오르군 합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모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시던 어머니였습니다.

운명을 앞둔 시기 어머니는 우리에게 이제 한번만이라도 동생을 만나보면 자기 병이 뚝 떨어질것 같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며 이모는 어려서부터 부모님들과 헤여져 살았기때문에 육친의 사랑과 정을 받지 못하고 고생을 많이 하였다, 이모가 외할머니를 많이 닮았다고 자주 외우군 하시였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이모가 조국에 오셨을 때 왜 사진 한장 찍지 못했을가 하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이모가 우리와 함께 지낸 반년이라는 나날이 어찌보면 짧았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모, 우리 가정은 다 잘 있습니다.

저와 세대주는 년로보장으로 집에 들어와있지만 그냥 앉아있을수가 없어 집짐승들을 기르고있습니다. 메추리, 닭, 돼지랑 길러서는 건설장에 지원도 하고 인민군대원호도 하며 손에서 일을 놓지 않고있습니다.

맏딸 금숙이와 군인민위원회에서 산업미술부원으로 일하고있는 사위도 잘 있습니다.

사위는 우리 고장도 도시를 닮아야 한다며 군안의 편의봉사시설들과 공공건물들을 인민들의 감정과 정서에 맞으면서도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으로 늘 바쁜 나날을 보내고있습니다.

둘째딸 향숙이네도 별일 없이 잘 지내고있습니다.

두벌자식이 곱다고 뭐니뭐니 해도 외손녀들이 저에겐 제일 큰 기쁨인가 봅니다.

외손녀(맏딸네 딸) 한진아는 공부도 잘하고 악기도 잘 탑니다. 눈썰미도 빨라 우리 내외의 일손 또한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꾀꼴새로 불리우는 외손녀(둘째딸네 딸) 리예홍은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노래를 잘 불러 전국아동방송예술축전에 4번이나 참가하였습니다. 지금은 소학교학생이 되였습니다.

이모, 정말이지 전하고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여기에 다 쓸수 없습니다.

제가 당부하고싶은것은 이모의 건강입니다. 년세도 많으신데 건강에 특별히 주의를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조국에 나오십시오.

이번에 나오시면 어머니묘소도 돌아보고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못 차려드린 이모의 팔갑상도 늦으나마 차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모와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며 이만 쓰겠습니다.

강원도 천내군 학포로동자구 97인민반 김정희조카올림

확연히 달라졌다

나는 2013년에 처음으로 고국을 찾았다.

그때 금강산관광으로 잊지 못할 나날을 보낸것이 퍽 인상깊어 중국에서 고국을 다녀오는 사람들에게 평양방문소감이 어떤가고 자주 묻군 한다.

그럴 때면 그들은 조선이 확연히 달라졌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군 한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나의 가슴은 저절로 뿌듯해지군 한다.

그래서 언제면 고국에 또 가볼가 하고 생각도 많이 하였다.

그러던중 기회가 생겨 이렇게 5년만에 평양방문길에 올랐다.

변모되였을 평양의 모습을 머리속으로 그려보았지만 내앞에 펼쳐진 고국의 모습은 너무도 몰라볼 정도였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 기쁨이 넘쳐나고 상점들에는 국내산상품들이 그득히 쌓여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있었다. 그리고 멋있는 거리들이 곳곳에 일떠서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생산이 정상화되고있었다.

정말 확연히 달라진 고국의 모습이였다.

고국의 놀라운 전변이 과연 어디서 온것이겠는가.

그것은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의 두리에 하나와 같이 뭉친 인민의 일심단결에 있었다.

그래서 고국인민들은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들을 창조하고있는것이며 고국은 날로 발전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 고국을 위해 앞으로 특색있는 일을 찾아할 결심이다.

중국 길림성 룡정시 허만석

마음속축원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는 조선속담이 참으로 그른데 없다.

나는 지난 기간 로씨야에서 출판보도물들을 통해 고국에 대한 충분한 표상을 가지고있었다고 자부해왔다. 그러나 내가 본 고국의 모습은 상상했던것보다 더 훌륭하였다.

내가 돌아본 과학기술전당,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등은 현대적이면서도 민족적이고 웅장한것이였다.

나를 더욱 감동시킨것은 그 모든 창조물들이 인민을 위하여 세워졌으며 그곳에서 평범한 근로자들이 문명을 향유하고있는것이였다.

정말 고국인민들이 부러웠다. 여생을 고국땅에서 보낼수만 있다면 한이 없을것 같았다.

나는 고국의 눈부신 현실이 어떻게 펼쳐지게 되였는가를 금수산태양궁전과 만경대고향집과 같은 뜻깊은 장소들을 방문하면서 더 잘 알수 있었다.

고국이 오늘과 같이 사회주의조선으로 빛을 뿌릴수 있게 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나는 고국인민이 앞으로도 행복과 번영을 누려갈뿐만아니라 모든 일이 잘되여가기를 마음속으로 축원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조선인민의 앞길은 언제나 밝고 창창할것이라는것을 나는 확신하고있다.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 박 겐나지

우리 장단에 어깨를 들썩이며

우리가 중국 료녕성 심양시에 위치하고있는 심양모란문화예술양성쎈터의 무용실을 찾았을 때였다.

《따-라라- 리-라-란, 어깨를 들썩이며…》

무용실에서는 지도교원의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는 각이한 나이의 녀성동포들의 훈련이 한창이였다.

우리를 안내한 이곳 일군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심양시문화궁에서 열리는 공연에 참가하기 위한 련습을 하고있다는것이였다. 쉴참에 우리는 동포녀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련에서 심양으로 매일 출퇴근하면서 무용을 배우고있다는 송영순동포는 《어렸을 때에는 민족무용을 해보겠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민족의 춤가락을 모른다면 무슨 조선사람이랴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배우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잘 가르쳐준다는 소문도 나고 해서…》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곳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흥겨운 민족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나면 기분도 좋아진다고 하는것이였다.

민족적특색이 짙은 의상과 소도구로 부채춤과 장고춤 등에서 민족무용의 특성을 훌륭히 살려가는 동포들의 우아한 춤가락에 우리도 절로 흥취가 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민족무용을 열심히 배우고있는 동포들

공금련동포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기는 여기서 장고춤이랑 부채춤이랑 배우던 흥에 조선민요를 틀어놓고 봉사하다나니 식당을 자주 찾는 한 단골손님이 차를 몰고가면서 코노래를 흥얼거리다가 《이거 내가 어디서 들었던 노래가락이던가?》하고 말하였다는 일화까지 웃으며 이야기하였다.

이번 공연에서 주인공역을 수행하게 된다는 최현정동포는 사범대학입학준비로 몹시 바쁘지만 이번 기회에 민족무용을 잘 배워 앞으로 동포자녀들에게 조선민족무용을 배워주는 선생님이 되겠다고 말하였다.

5살 난 어린이로부터 60을 넘긴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춤을 배우는 50여명의 동포들중에는 기초교육부터 시작하여 5달만에 무용동작을 익혀 공연에 참가하는 정열적인 동포들도 있었다.

쎈터에서 무용을 배우던 과정에 모두가 혈육처럼 되였다는 이야기며 공연의 성과적보장을 위해 돈을 써가며 자체로 의상을 마련하였다는 이야기 그리고 동포들속에서 무슨 일이 제기되면 만사를 제쳐놓고 서로 도와준다는 이야기 등에서 우리는 해외에서 살아도 민족성을 이어가려는 동포들의 모습을 다시한번 가슴뜨겁게 받아안았다.

훈련으로 여념이 없는 동포들의 모습을 사진기에 담은 우리는 그들과 공연무대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쎈터를 나섰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동포들이 출연하는 민족무용의 일부

상식

조선민족의 숟가락과 저가락

조선민족은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예로부터 손으로 음식을 먹지 않고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민족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있다.

음식물을 숟가락으로 먹는 관습은 세계 여러 민족들의 식생활에서 찾아볼수 있으나 그 리용에서는 서로 차이가 있다. 숟가락은 용도상으로 보면 여러가지 음식을 떠먹는데 쓰기도 하고 주로 국과 같은 물을 떠먹는데만 리용하기도 한다.

조선사람들은 숟가락을 밥과 국 그리고 물기있는 반찬을 떠먹는데 리용하여왔다.

음식물을 집어먹는데 리용되는 저가락도 쓰는 방법에서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조선사람들은 저가락으로 물기가 없는 반찬이나 떡과 같은 음식을 집어먹는다. 빵을 주식으로 하는 서양사람들은 빵을 손으로, 반찬은 포크로 집어먹는다. 중국사람들과 일본사람들은 저가락으로 밥과 반찬을 다같이 집어먹는다.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쓰는가 저가락을 쓰는가 하는것은 밥을 담아먹는 관습과 많이 관련되여 생겨났다. 조선민족은 사람마다 한끼분의 밥을 밥그릇에 담아 각기 상우에 놓고 떠먹으므로 밥알이 흘러 떨어질수 있는 저가락보다 숟가락이 더 편리하였다.

밥을 숟가락으로, 반찬을 저가락으로 먹는 관습은 조선민족이 예로부터 밥을 주식으로 하였으며 각종 김치와 국, 여러가지 탕류 등 물기가 많은 음식을 발전시켜 섭취한데 있으며 조선민족음식의 구성과 상차림풍습에 부합된것이였다.

*　*　*

고국방문

통일문학을 더 많이 창작할 일념속에

- 재중동포작가통일문학회 준비위원회대표단 -

조선민족의 단합을 촉진시키고 통일의 길을 앞당기기 위하여 중국에 살고있는 동포들로 조직된 재중동포작가통일문학회 준비위원회대표단은 지난 4월 평양을 방문하였다.

평양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동포들이 대다수여서 그런지 참관의 하루하루는 감동과 놀라움속에 이어졌다.

박초란동포는 평양의 모습이 듣던바 하고는 너무도 다르다고 하면서 평양이 깨끗하고 사람들도 친절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이며 주체사상탑, 조선혁명박물관 등을 돌아보고 태양절에 즈음하여 진행된 여러 국가행사들에 참가한 대표단성원들은 한평생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마음쓰신 절세위인의 불멸의 업적을 감동깊이 가슴속에 새겨안기도 하였다.

그들은 경치 아름다운 모란봉에서 여러 정각들과 력사유적들을 돌아보면서 고국의 문화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으며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뛰놀기도 하고 흥겨운 춤판에도 뛰여들어 고국인민들과 정을 두터이하기도 하였다.

동포들은 이외에도 평양교원대학, 대성산혁명렬사릉, 우의탑 등도 돌아보았다.

대표단단장인 홍용암과 리정화, 허만석, 한태익, 최길록을 비롯한 동포들은 앞으로 민족을 위하는 통일문학을 더 많이 창작하여 통일의 날을 앞당기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들의 고국방문기간은 비록 길지 않았지만 깊은 인상을 남긴 나날이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평양교원대학을 돌아보았다.

김일성화축전장을 찾아서

고국방문이 흥에 겨워 사진 한장 남겼다.

돈과 직업, 일터와 조국 (1)

《동생한테서 우편배달을 해보고싶다는 련락이 왔어. 한시간넘게 통화하면서 차라리 다른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라고 했지. 그 일을 하면 최저임금도 보장받기 힘들거든.》

언제인가 사업차로 서울에 갔을 때 음식배달업체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난적 있었다. 오랜만에 회포를 나누다가 남쪽사회에서의 심각한 취업난이 화제에 올랐는데 비정규직으로 있는 동생이 직업을 구하지 못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것이였다. 친구는 음식배달업체에 집안의 명줄을 건 자기도 얼마 안되는 품삯으로 겨우 살아가고있는데 대학을 졸업한 동생마저 온전한 직업을 얻지 못해 이일저일 닥치는대로 해가고있다며 눈물이 글썽해서 말하였다.

그의 걱정은 공연한것이 아니였다. 최근 류통업계에서 써비스업이 떠오르고있다지만 정작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응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있는 형편이였던것이다.

변호사, 의사, 금융, 귀금속 및 보석세공과 같은 직업들과 달리 우편배달이나 식당바닥청소, 그릇닦기와 같은 로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낮은 임금밖에 받지 못하고있는것이다.

돈이 모든것을 좌우지하는 사회에서 직업선택의 기준은 철두철미 돈을 얼마나 많이 벌수 있는가 하는데 있다. 더 많은 일을 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든가, 《애국》이니, 《량심》이니 하는 말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 환경에서 나서자란 나 역시 세상에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이 있듯이 좋은 직업과 천한 직업이 있고 나쁜 직업은 불우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먹고살기 위해 어쩔수 없이 선택하는것으로 여겨왔다.

하기에 북부조국을 방문할 때 나는 그 기회에 《천한 직업에 종사하는 불쌍한 사람들》의 생활형편에 대해 알아보리라 속다짐했었다. 하지만 북부조국의 현실은 애초에 생각했던것과 너무나 달랐다.

무릇 지구상에 있는 나라마다 하루의 시작과 더불어 펼쳐지는 모습도 각이하다. 일자리를 찾아 이른아침부터 거리를 방황하는 실업자들로 거리가 메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한겨울의 긴긴 밤을 추위에 떨며 한지에서 새운 울분을 터치는 시위자들의 항변이 도시의 아침을 흔드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북부조국에서의 하루는 사람들의 희망넘친 아침출근길에서부터 시작되고있었다. 밝은 얼굴로 활기있게 걸음을 다그치는 사람들, 거리들을 누비며 경쾌하게 달리는 전차와 뻐스들… 또 하루 혁신을 약속하며 어깨나란히 공장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어린애를 탁아소에 맡기고 즐겁게 일터로 향하는 녀성로동자들의 얼굴에도 로동의 희열이 함뿍 어려있었다. 활기에 넘쳐 일터로 오가는 북부조국의 풍경은 심각한 실업문제로 하여 앞날에 대한 희망이 없이 비관과 우울에 잠긴 자본주의세계와는 너무도 대조적이였다.

더욱 감동적인것은 이곳 사람들에게 있어서 직업은 먹고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한 영예로운 초소로 되고있는것이였다.

귀하고 천한 직업이 따로 없었다. 누구나 직업에 대한 긍지와 애착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고있었다.

나의 일터는 내가 지켜선 조국!

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들어볼래야 들어볼수 없는 이 말을 나에게 해준 사람은 누구나 선뜻 선택하기 헐치 않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말하는 《천한 직업》에서 한생을 일해온 녀성이였다.

그의 이름은 최정순, 신의주물정화사업소 위생시설수리공인 그의 가정은 도시경영부문의 한 직업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까지 3대를 이어 성실하게 일해오고있다. 그를 만났을 때 나는 이제는 일흔을 넘긴 그에게 무슨 재미로 한생 이 일을 해오는가고 숨김없이 물었다.

《주민들이 속상해하던것을 말끔히 고쳐주고 손을 씻을 땐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모른답니다. 인민들이 좋아하는것보다 더 좋은것이 있나요?》

그러면서 그는 말했다. 물이 안나오면 바께쯔로 길어먹을수도 있고 리발사가 없으면 다른 리발소에 갈수도 있다. 그러나 위생시설수리공이 없으면 도시의 생활흐름이 멎는다고.

재카나다동포 김경란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무용 (1)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무용은 조선민족의 우수한 생활풍습과 고상한 정신세계가 반영된 민족무용유산의 하나이다. 이 시기 민족무용은 우리 나라 각 지방들에서 근로대중의 로동생활, 정서생활을 반영한 춤들이 더 많이 창조되고 널리 추어짐으로써 지방적특색이 뚜렷이 나타났으며 민족적성격도 보다 강화되였다.

무엇보다먼저 근로대중의 생활속에서 대중적인 민속무용이 다채롭게 발전하였다.

민속무용은 춤을 추는 대상에 따라 두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평범한 근로대중속에서 추어진 대중적인 민속무용이며 다른 하나는 민간직업예술인들속에서 창조공연된 민간예술무용이다.

대중적인 민속무용은 근로대중이 정서생활을 즐기기 위한 목적에서 춘 무용으로서 민속무용의 주류를 이루며 그 종류와 형식도 훨씬 다양하다.

조선봉건왕조 전반기 우리 인민들의 정서생활속에서 가무놀이가 성행하였으며 그 기능과 역할이 더욱 높아졌다.

오랜 력사적전통을 가지고있는 민속가무는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러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히 련관되여 더 자주 진행되게 되였으며 가무의 내용도 다양해졌다.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로동생활을 반영한 가무, 반침략투쟁을 반영한 가무, 민속놀이를 내용으로 한 가무 등 다양한 주제의 가무들이 진행되였으며 그가운데서도 풍작의 성과를 바라거나 경축하는 내용의 가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농업로동과 관련한 농경가무는 우리 나라 각지의 농업생산지역들에서 공통적으로 진행되였으며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등지에서 지역적특색을 가지고 진행되였다. 농경가무는 정월대보름이나 추석과 같은 민속명절을 계기로 민속놀이와 결부되여 성대하게 벌어졌다.

어촌들에서는 어업로동생활을 반영한 《봉죽놀이》, 《니나가타령》과 같은 가무들이, 직조업이 발전한 지역들에서는 《길쌈춤》, 《무안둥당이타령》과 같은 가무들이 성행하였다.

로동생활을 반영한 가무들뿐아니라 민속명절의 흥취를 돋구어주는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의 《닐리리》, 함경도의 《돈돌라리》와 같은 세태민속가무들도 펼쳐지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우리 인민의 반침략투쟁과 반봉건투쟁이 세차게 벌어졌는데 일본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한 7년간의 임진조국전쟁을 비롯한 반침략투쟁을 내용으로 한 《강강수월래》, 《쾌지나 칭칭 나네》와 같은 애국적인 주제의 가무들도 창작되였다.

또한 이 시기에 우리 인민들의 다양한 생활과 정서를 생동하게 반영한 민속춤들이 각 지방들에서 널리 추어졌으며 지방적특색을 가지고 발전하였다.

특히 조선봉건왕조 후반기에는 전반기에 비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생동하게 형상한 다양한 춤들이 많이 창작되여 민속명절놀이를 비롯한 대중적인 춤마당을 이채롭게 장식하였으며 춤의 주제와 내용도 더 구체화되고 세분화되였다.

대표적인 농업민속무용으로는 《칠산풍년춤》, 《염주낫춤》, 《옹헤야》 등을 들수 있다. 이러한 민속춤들을 보면 농사가 잘되기를 바라면서 영농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며 춘것도 있고 알곡을 수확하는 과정을 형상한 춤도 추어졌으며 김매기나 풀베기를 내용으로 한 춤도 있었다.

농업로동생활뿐아니라 어업, 수공업로동생활을 반영한 민속무용들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것은 평안도 성천지방의 《길쌈춤》과 덕천지방의 《왕바구니춤》, 함경도의 《삼삼이춤》 등을 통해 찾아볼수 있다.

각 지방인민들속에서는 세태생활을 반영한 민속무용들도 많이 추어졌는데 대표적인 무용으로서는 평안도의 《평고춤》, 《채북춤》, 황해도의 《들북춤》, 《어깨춤》, 함경도지방의 《버들방천춤》, 개성지방의 《줄꽃놀이춤》 등을 통해 찾아볼수 있다.

우리 인민들의 반침략반봉건투쟁을 내용으로 한 민속무용들도 적지 않았는데 《조천무》, 《통영승전무》가 그 대표적인 춤들이였다.

사회과학원 박사 김선영

유모아

지나친 조심

주인이 집마당에 버드나무모 30대를 심어놓고 동네아이들이 장난삼아 뽑지 않을가 걱정하여 하인에게 그것을 잘 보라고 일렀다.

며칠후에 하인에게 물었다.

《동네아이들이 밤에 와서 버드나무모를 뽑지 않았느냐?》

《아니올시다. 저도 밤에는 걱정이 되여 그걸 죄다 뽑아두었다가 아침에 도로 땅에 꽂아놓지요.》

* * *

야 화

량반을 골려준 김삿갓

김삿갓이 북청고을에 들려 주막이라도 얻어볼가 하여 원을 찾아갔을 때였다.

《그러하니 네가 정녕 칠보산 구경을 간단 말이렸다?》

《그러하오이다.》

《대체 너같은게 칠보산이 어디에 붙었는지 알기나 하느냐?》

삿갓도 방랑길에 모욕이란 모욕은 다 당한지라 거들거리는 원에게 굽실거리고싶지 않아서 칠보산위치를 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원은 말버릇이 고약하다면서 칠보산을 어느만큼 아는가고 물었다.

《칠보산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온갖 보물인 칠보를 모아놓은 산으로서 이 나라 조종의 산인 백두산악과 더불어 동해의 울릉도와 함께 한날한시에 태여났음을 알리오. …》

원은 산에 생일도 있는가고 다우쳐 물었다.

삿갓은 사람이 어미품에서 떨어진 날이 있듯이 산도 땅속에서 솟은 날이 생일이라고 말했다.

원은 더 말해보았댔자 삿갓에게 코나 떼우기 십상인지라 더 말하지 않고 주막을 잡아주라고 뒤따르던 하인들에게 명하고 돌아갔다.

삿갓은 그날 주막에 들어 얻근하게 술대접도 받고 밥도 얻어먹었다.

한편 원은 명색이 사또라는게 걸인에게 야유를 당했으니 잠을 이룰수 없었다.

래일아침이면 온데 소문날것 같아 밤중으로 삿갓에게 죄를 주어 날이 밝을 때쯤 형틀에 묶어놓으리라 결심했다.

이때 주막을 다녀온 하인이 말하기를 그 걸인이 주막로파에게 자기를 김삿갓이라고 말하더라고 하였다.

김삿갓이라면 본적은 없어도 그가 시로써 량반을 곧잘 놀린 일화들을 알고있던 북청군수는 자기가 야유당한것도 세상에 파랑새처럼 날아다닐것 같아 안절부절하였다.

그러자 례방이 여우웃음을 지으며 제 꾀를 이야기했다.

《아마 지금쯤은 술을 마시고 곯아떨어졌겠으니… 벼락같이 돌입해 들어가서 그놈을 깨우는 즉시 목에 칼을 들이대고 이 자리에서 당장 시한수를 짓지 못하면 목을 치겠다구 을러메얍죠. 설사 그놈이 정말로 김삿갓이라해도 술취한 놈에게 병쟁기를 앞에 대고 갑자기 시를 지으라 하면 혼비백산하여 머리속에 든 글줄도 천리로 줄행랑을 놓을것이니 꿩먹고 알먹고 둥지털어 불때기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원에게 적당한 시제를 골라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원은 고르고고른 생각끝에 북방은 항상 눈이 많이 오는 고장이라면서 눈을 가지고 짓도록 하라고 일렀다.

잠시후에 례방이 힘꼴이나 쓰는 사령 두명을 데리고 주막으로 갔다.

그리고는 곯아떨어진 삿갓의 목덜미에 시퍼런 칼날을 대고 즉석에서 《눈》을 가지고 시한수를 짓지 못하면 오늘밤이 너의 제사날로 될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삿갓은 별로 생각하는 품도 없이 시를 줄줄 내리엮었다.

하늘왕이 죽었는가
인간왕이 죽었는가
일만나무 푸른 산이
몽땅 상복을 입었구나

래일아침 둥근해가
조상을 오게 되면
집집마다 처마들이
눈물 뚝뚝 흘리리라

례방은 그만 입을 쩍 벌리고 말았다.

여태 시에 능하다는 선비들을 많이 보아왔어도 이 시귀신의 재주엔 견줄바가 못되는것들이였다.

뒤방에서 몰래 엿듣고있던 원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말았다.

온 나라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량반들을 조소하고 골려준 조선봉건왕조시기의 풍자시인 김삿갓(본명은 김병연)에 대한 이야기는 허다하다.

*　*　*

조선속담 (의지)

- 국화는 서리를 맞아도 꺾이지 않는다

서리를 맞으면 다른 꽃들은 다 시들어도 국화는 서리를 이겨낸다는 뜻으로 절개나 의지가 매우 굳센것을 비겨 이르는 말.

- 봉황새는 아무리 주려도 조는 먹지 않는다

절개가 굳고 의젓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작두날에 올라서겠다

성미가 날카롭고 불같음을 비겨 이르는 말.

- 하늘이 열쪼각이 나더라도

《그 어떠한 곤난과 애로가 닥쳐오더라도》라는 뜻으로 무엇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결심할 때에 쓰는 말.

- 빠른 바람에 굳센 풀을 안다

굳은 뜻과 절개는 어떤 시련을 겪고나면 더욱 뚜렷이 나타나게 됨을 이르는 말.

*　*　*

추석날 특색있는 단음식-노치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머지않아 우리는 민속명절 추석을 맞게 됩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에 쇠는 민속명절로서 한해농사를 지어놓고 즐기는 날이며 돌아간 조상들을 위하여 지성을 표시하는 날입니다.

《5월농부, 8월신선》이라는 말이 있듯이 땀을 흘리며 등허리가 마를 날이 없이 일하던 음력 5월에 비해 음력 8월은 한해농사를 다 지은것이나 같은 때여서 신선처럼 지낼수 있다는데로부터 나온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곡백과 무르익고 가을걷이를 앞둔 시기이라 이달에 떠오르는 보름달을 바라보며 즐기는 추석날의 명절음식 또한 모두 햇곡식을 거두어서 만든것들이였습니다.

이날의 음식들로는 송편, 찰떡, 쉬움떡, 설기떡, 밤단자, 찹쌀청주, 박나물과 토란국 등 여러가지를 꼽을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노치는 정말 특색있는 추석음식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 급양학부 교원인 저는 이번에 추석날의 전통적인 민족음식인 노치와 그것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께 소개하게 된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노치는 쌀가루를 익반죽하여 엿길금가루로 삭혀서 기름에 지진 단음식입니다.

노치는 찹쌀로 만드는것이 기본이지만 찰기장이나 찰조가루를 익반죽하여 만들기도 합니다.

노치는 평안도, 황해도에서 많이 만들어먹었으며 특히 평양지방의 노치가 유명하였습니다.

평양지방에서는 추석전날에 노치를 지져서 단지나 항아리에 넣었다가 명절음식으로 먹었으며 오래 두어도 그 맛이 변하지 않아 가을걷이때 새참이나 아이들의 간식으로도 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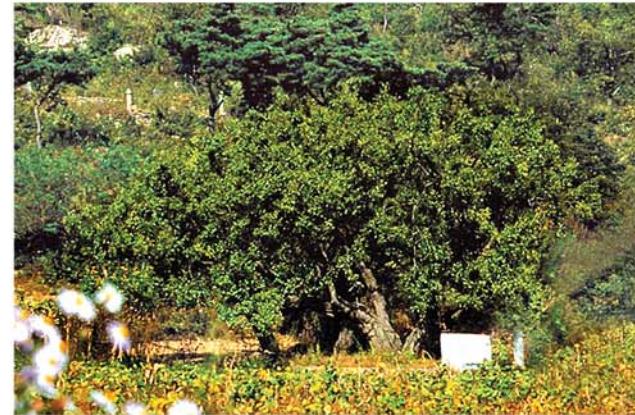
슬기롭고 근면한 우리 인민은 낟알에 들어있는 농마를 당화시키는 엿길금의 효소작용원리를 리용하여 단맛감들을 전혀 넣지 않고도 찹쌀가루를 엿길금가루로 당화시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름에 지져서 달콤하면서도 쫄깃쫄깃하며 영양학적가치가 클뿐아니라 4~5개월동안 두고 먹을수 있을 정도로 보관성이 좋은 노치를 만들었던것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노치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기로 합시다.

음식감으로는 찹쌀 750g, 사탕가루 15g, 물 150g, 길금가루 100g, 꿀 60g을 준비합니다.

먼저 쌀을 깨끗이 씻어 2시간정도 불구었다가 가루를 냅니다. 찹쌀가루를 끓는 물로 말랑말랑하게 이겨놓은 후 길금가루를 조금씩 섞으면서 넙적하게 밀어 일정한 크기의 떡반대기를 만듭니다. 이것을 150g씩 떼여 동글납작하게 만든 후 그우에 다시 길금가루를 뿌려 큰 그릇에 담고 뚜껑을 덮어 따뜻한 곳에서 24시간동안 삭힙니다.

반죽물이 충분히 삭으면 한데 합쳐서 고루 이깁니다. 누그러진 반죽물을 직경 5㎝, 두께 1.5~2mm크기로 빚어 지짐판우에 기름을 두르고 약한 불우에서 천천히 지집니다.

다 지진 노치는 사탕가루와 꿀에 재워 단지에 넣어두는데 하루밤이 지나서부터 꺼내먹을수 있습니다.

눅신하고 쫄깃쫄깃하여 맛있게 된 노치는 그야말로 추석날의 달맞이기쁨을 더해주는 제일가는 음식으로 됩니다.

여러분, 노치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 가정에서도 쉽게 만들수 있으니 오는 추석날에 손수 만들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맛도 보이면서 명절을 즐겁게 보내기 바랍니다.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 급양학부
교원 정영철

조국의 천연기념물 (20)

평산대추나무

의의가 있습니다.

만달산죽대둥굴레는 황해북도 승호군 광정리에 있는 만달산의 낮은 산지에 퍼져있습니다. 이 죽대둥굴레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주체6(1917)년에 이곳에 오시여 널리 심어 약재로 쓰도록 가르쳐주신 식물입니다.

이곳 산지에는 만달산죽대둥굴레가 0.5정보의 면적에 3만포기정도 자라고있습니다. 제일 긴 줄기는 50㎝정도이고 작은것은 10㎝입니다.

만달산죽대둥굴레

황해북도의 천연기념물들에는 평산대추나무, 답동산가침박달군락, 만달산죽대둥굴레, 룡산리해조류화석도 있습니다.

평산대추나무는 황해북도 평산군소재지에서 남서쪽으로 20㎞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철봉산에서 자라고있습니다. 나무는 1630년경에 심었습니다.

나무의 높이는 9.5m이고 뿌리목둘레는 5.7m이며 나무갓너비는 10m정도입니다. 나무는 뿌리목부위에서 2개의 줄기로 갈라지고 우로 올라가면서 많은 가지들이 갈라져 나무갓은 넓게 퍼진 둥근우산모양을 이루고있습니다. 나무는 크고 오랜 나무로서 대추나무의 특성과 최대수명을 연구하는데 의의가 있는 천연기념물입니다.

답동산가침박달군락은 황해북도 서흥군 봉하리소재지마을에서 남동쪽으로 2㎞정도 떨어진 답동산의 비탈면에 자연적으로 퍼져있습니다.

군락의 면적은 1.5정보이며 이곳에는 조팝나무, 싸리나무, 옻나무 등이 섞이여 자라고있습니다.

제일 큰 나무의 높이는 2.5m, 작은 나무의 높이는 0.7m입니다.

군락은 우리 나라에서 전형적인 가침박달무리로서 나무의 퍼짐상태와 생태학적연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이곳의 풍치를 돋구는데서도

이 죽대둥굴레는 약용자원인 동시에 이 종의 생태연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나라의 귀중한 재보입니다.

룡산리해조류화석은 황해북도 중화군의 룡산리에서 북동쪽으로 약 1.5㎞ 떨어진 도양골의 산비탈면에 있습니다.

해조류화석이 드러나보이는 면적은 너비가 25m, 길이 150m로서 비교적 넓으며 암층의 경사각은 32°정도입니다.

해조류화석층의 두께는 2.5~3m이며 회백색의 치밀하고 두꺼운 층모양 또는 덩이모양을 이루고있습니다. 람조류가 남긴 생물퇴적구조인 이 해조류화석에는 그것의 생명활동으로 생긴 흔적이 석회암결면에 동심원모양의 겹친 구조로 나

답동산가침박달군락

룡산리해조류화석지대

타나있습니다. 그 형태는 각이하며 크기는 보통 5~5.5㎝인데 큰것은 8~10㎝되는것도 있습니다.

화석은 지금으로부터 약 11~12억년전에 이 지역이 바다환경이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런것으로 하여 화석은 중원생대시기에 바다에서 살았던 해조류들의 생태환경을 밝히는데서 학술적가치가 매우 큽니다.

김형직사범대학 강좌장 백현실

력사인물

왜적과의 싸움에서 용맹을 떨친 정담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나라의 자주권을 고수하고 사랑하는 조국강토를 수호하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 용감히 싸웠다.

그가운데는 임진조국전쟁시기 왜적과의 싸움에서 공을 세우고 희생된 정담도 있다.

1592년 임진조국전쟁이 개시되자 김제군수로 있던 그는 바다를 건너온 오만무례한 침략자 왜적을 쳐물리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할것을 다짐하였다.

어떻게 하나 전라도로 쳐들어가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던 왜적들은 그해 7월 웅치(427m)와 리치(374m)를 넘어 전주에 침입하려고 획책하였다. 그러므로 웅치와 리치를 방어하는것은 전라도지방을 왜적의 침략으로부터 고수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싸움으로 되였다. 웅치에 달려든 왜적의 병력수는 무려 1만명이나 되였다. 정담은 의병장 황박, 라주판관 리복남 등과 함께 웅치(진안군)를 방어하여 용감히 싸웠다. 황박과 리복남의 부대가 력량상차이로 뒤로 물러서자 그의 부대는 더욱 고군분투하면서 왜적들과 싸웠다. 이때 수하의 비장이 그에게 물러나자고 권고하자 정담은 《차라리 적 한놈을 죽이고 죽을지언정 차마 한몸을 생각하여 달아남으로써 적들이 거침없이 내밀게 하지는 못하겠다.》고 군사들과 의병들을 고무하면서 적들을 무리로 쓸어눕혔다.

가렬한 격전끝에 그는 적장을 죽이고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군사들과 의병들의 용감한 투쟁에 의하여 왜적들은 끝내 많은 손실을 입고 전라도침공을 포기하지 않을수 없었다.

웅치에서 적의 침공을 좌절시킴으로써 전라도로 침입하려던 적들의 기도는 분쇄되고 이것은 관군과 의병들의 투쟁기세를 고무하였다.

정담은 높은 관직을 지니지 않았으나 오직 나라를 위한 길에 자기의 한몸을 서슴없이 바쳐 후세에 이름을 남기였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리일심

평안북도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10)

- 륙승정 -

천정의 단청

륙승정은 평안북도 녕변군 녕변읍에 있는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루정입니다.

주변의 자연경치에 알맞게 련못을 파고 그 한가운데 세운 이 루정의 모습은 오늘도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옛날에는 륙승정을 청천강이북의 루정가운데서 제일로 여기였으며 향미정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녕변읍지》에 의하면 1727년 가을에 련못을 파고 그 다음해인 1728년 여름에 정자를 세웠으며 1764년에 이 정자의 형태를 고쳤다고 합니다. 륙승정이란 이름은 이 정자에서 녕변읍에 있는 모란봉의 달뜨는 구경, 남산의 해지는 경치, 약산동대에서 들려오는 구성진 피리소리, 훈련장에서 들려오는 무술익히는 소리를 비롯한 여섯가지의 아름다운 운치를 감상할수 있다고 하여 붙여진것입니다.

주머니형태로 생긴 련못가운데 돌축대를 쌓고 그우에 아담하게 지은 루정의 본채는 정면 3간(7.62m), 측면 2간(4.44m)이며 북쪽 가운데간에 뒤채(3.16×2.52m)가 덧붙어 凸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흘림기둥우에는 단익공두공을 얹고 우에는 날개를 펼친듯 경쾌한 합각지붕을 이었으며 기둥밖으로는 란간을 두르고 동쪽에는 나무계단을 놓아 오르내리게 하였습니다.

륙승정은 다른 루정들에 비하여 소박하지만 걸모습에 변화가 많은 아담한 건물입니다. 지붕걸모양의 변화는 건물의 평면구조와 주로 관련되는데 일반적으로 凸형의 건물이라고 하면 먼저 왕릉의 정자각을 련상하게 합니다. 하지만 왕릉의 정자각들의 지붕은 대체로 배집지붕으로 되여있다면 여기서는 합각지붕을 이어 루정으로서의 특성을 살리고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단청으로 장식하였습니다.

민족의 지혜와 재능이 깃들어있으며 특히 조선봉건왕조시기 루정건축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륙승정은 오늘 근로자들의 훌륭한 문화휴식터로 리용되고있습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강은순

반제자주의 기치를 들고

오늘 그 어떤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고 반제자주를 숭고한 리념으로 하고있는 쁠럭불가담운동은 시대의 위력한 력량으로서 력사의 전진을 힘있게 떠밀고있다.

지난 기간 쁠럭불가담운동대렬이 확대되고 성원국들이 반제자주의 기치를 들고나가는데 겁을 먹은 제국주의자들은 이 운동을 와해약화시키고 나아가서 그 존재자체를 없애버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여기에서 제국주의자들이 주되는 창끝을 돌린 곳은 반제자주적립장이 강한 나라들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제재책동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리였다.

특히 반제자주의 전초선에 서있는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공화국은 자기 힘이 강해야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고 세계자주화위업도 추진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길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갔다.

이러한 현실을 보며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경탄을 금치 못해하며 공화국에 대한 지지와 련대성의 목소리를 보다 높여나가고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웬만한 나라라면 열번도 더 정복당하여 국가의 붕괴, 민족의 멸살이라는 비극적운명에 처하고도 남았을것이지만 조선은 단독으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포위를 격파분쇄하면서 련전련승하여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고있다, 이것은 현대사가 그 전례를 알지 못하는 기적중의 기적이 아닐수 없다고 격찬하였다.

메히꼬와 핀란드, 네팔의 정당,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공화국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정의와 진리,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정당, 단체들, 국제기구들, 진보적인민들이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열렬한 지지와 련대성을 보낼것을 호소하였다.

이런 속에 평양에서는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녀성대행진이 있었고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을 비롯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 조선인민과 녀성들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국제민주녀성련맹 련대성행진 등이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가장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조선의 종합적국력을 비상히 강화하시고 조선반도는 물론 세계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해가시는것으로 하여 현시대의 가장 탁월한 정치군사가로 국제사회의 찬탄을 받고계신다고 하면서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신 그이께 광명한 미래를 의탁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할것이라고 하였다. 뿐만아니라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에 참가한 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위원장을 비롯한 세계의 여러 나라 정당, 단체 인사들과 대표들은 세인을 놀래우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공화국의 눈부신 성과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를 안겨주고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 자기들의 결의를 다지였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침략과 반침략, 전쟁세력과 평화력량사이의 대결이 더욱 첨예화되고 쁠럭불가담운동성원국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위협공갈과 무력간섭이 보다 우심해지고있다. 그러나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여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려는 인류의 념원은 막을수 없다. 하기에 쁠럭불가담운동성원국들의 단결과 협조, 지지와 련대성은 보다 강화되고있다.

공화국은 앞으로도 세계 진보적인류의 지지와 련대성에서 커다란 고무를 받으며 쁠럭불가담운동이 내세운 반제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갈것이다.

본사기자

상식

가락지와 반지

가락지는 두개의 고리를 한쌍으로 한것이며 반지는 한짝으로 된것이다.

가락지는 한군데에서 갈라져나간 《갈래》의 뜻인 《가락》에 손가락을 나타내는 《지》자가 더해진것이며 반지는 한쌍을 나눈 절반이라는 뜻이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가락지를 결혼한 녀성들만이 사용하고 결혼하지 않은 녀성들은 반지를 끼였다.

가락지는 쌍으로서 결국 부부 한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있다.

* * *

정치난쟁이의 추태

지난 몇달어간에 분렬과 대결의 상징인 판문점에서는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전격적으로 열리였고 력사상 처음으로 조미수뇌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진행되여 온 세계가 부글부글 끓어번지였다.

조미수뇌회담을 앞두고 세계의 정세전문가들은 일본정객들이 《일본배제》라는 현실에서 벗어나보려고 안깐힘을 쓰고있다고 평한적이 있었다.

이것은 그릇된 평이 아니였다.

조선반도문제에 리해관계가 있는 나라들은 모두 태평양지역의 정세발전에 합류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외교적노력을 기울이고있는데 유독 일본만이 변천된 흐름을 바로 보지 못하고 압력소동에 지꿎게 매여달려왔기때문이였다.

세계가 다 알다싶이 조미대화가 화제에 오르던 첫 시기부터 일본은 오만가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조선반도에서 저들이 바라지 않는 변화가 일어날가봐 안절부절하였다.

일본이 조선반도에 감돌고있는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를 그토록 배아파하며 반대해나서는 리유가 어디에 있는가부터 보기로 하자.

이미 일본은 평화와 안정에로 향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여 군국주의부활과 아시아재침의 칼을 다 갈아놓았다고 할수 있다.

이제 남은것은 현행헌법을 뜯어고쳐 법적명분을 마련하는것뿐이다. 이런 일본의 앞길에 화해와 평화의 새시대가 열리면 군사대국화와 아시아재침기도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게 될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그러던중 워싱톤에서 조미대화를 취소하겠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는 소리를 전해듣자 아베는 생각해볼 사이도 없이 제꺽 《존중하고 지지한다.》, 《원래부터 북미정상회담을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환호를 올리였다. 그런데 미국이 조미수뇌회담개최일정은 변함없다고 다시 언급하자 아베는 금시 돌변하여 《적극 환영한다.》, 《누구보다 회담실현을 강력히 기대한다.》고 박수를 쳐대였다.

그 재빠른 표정변화는 정말 카멜레온도 무색케 할 정도였다.

일본이 북남, 조미관계에서 도외시되고있을뿐아니라 공화국에서 있은 북부핵시험장페기의식에도 초청장을 받지 못한데 대해 불안을 느낀 아베는 전화통에 매달려 백악관에 《그 어느때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때》라며 요사를 떨어댔다.

아무리 요사를 부려야 그것은 외토리신세가 된데 대한 자체불만을 뱉아놓은 격일뿐이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을 보기가 얼마나 민망스러웠으면 아베의 미국행각과 관련하여 조언을 준다며 수상관저를 찾아간 일본의 전 금융담당상이 《미국대통령으로부터 강아지와 같은 취급을 받으면 안된다.》고 신신당부까지 하였겠는가.

그야말로 무엇으로써도 부인할수 없는 일본의 처지이다.

년초부터 조선반도정세가 완화에로 방향을 돌리기 시작하자 덴겁을 하며 끈질기게 랭기를 뿜어댄것이 바로 일본이다보니 이제와서 누구를 탓할것도 못된다.

《조선의 매력공세에 성급하게 반응해서는 안된다.》, 《헛눈팔지 말라.》,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다.》고 떠들며 압력나발을 주문외우듯하면서 수상이니, 외상이니 하는 정객들이 유럽과 아메리카, 중동지역을 뻔질나게 찾아다니고 공화국과 외교관계를 가지고있는 아시아, 아프리카나라들에 돈주머니를 흔들어대며 대조선압력소동에 합세하게 만들려고 발광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격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는 너절한 흉심을 안고 지역정세를 긴장시키는 군사연습들을 뻔질나게 벌리면서 공화국에 대한 압력책동에 계속 매달려왔다.

일본이 이런 주제넘고 향방이 없는 짓거리를 계속하는것은 조선반도주변구도에서 배제된 저들의 궁색한 처지를 가리우고 어떻게 하나 《존재감을 과시》하여 몸값을 올려보자는것이다.

일본이 발버둥친다고 하여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지향하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흐름이 달라지는것은 아니다. 일본은 이미 조선반도문제에 머리를 들이밀 자격도 체면도 모두 잃은 나라이다.

일본에 있어서 강아지취급을 피할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제 처지를 잘 알고 처신을 똑바로 하는것이다.

본사기자

조선의 관광

청년호텔

청년호텔은 평양시 만경대구역 광복거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있습니다.

주체78(1989)년 5월에 준공된 호텔의 연 건축면적은 4만여㎡이며 400여개의 방이 있습니다.

호텔은 지하 1층, 지상 30층으로 되여있습니다.

1, 2층에는 원형홀을 중심으로 상점, 야외 및 실내물놀이장과 한증방 그리고 리발과 미용, 안마 등을 할수 있는 편의봉사시설들이 있습니다.

호텔에는 연회장과 면담실, 여러개의 크고작은 식사실, 화면반주음악실, 기념품매대, 책방, 당구장, 탁구장 등이 꾸려져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호텔은 친절한 봉사로 손님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길것입니다.

못가의 정서　　본사기자 최원철

록음방초 우거진 못가,
그 아름다운 자태와 조화를 이루며 물오리들마저 유유히 노니니 못가의 정서는 더더욱 이채로움을 안겨주는듯싶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1882149
http://www.korean-books.com.kp(조문, 로문)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